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1999 3/4

'99 제3차

한국 보육 교사회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한국 보육 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3층 (우) 100-391
☎ 02) 2275-8505-6
FAX: 2275-8506 KDTA (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면 가난하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못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9.3/4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2275-8506 KDTA(천리안)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99 발전하는 보육상'을
수상한 광주지부 회원들

1999년 3/4월호(통권 68호)/첫발행 1992년 5월 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정희연/편집인 박정애, 이선주, 김희경/펴낸날 1999년 3월 1일

우리네

아이들

'99년 3/4월호

통권 68호

권두언	4
보육행정 1·2·3	6
'99년 한국보육교사회	28
교사교양	32
사이버정보망	35
현장교육 1·2	36
어린이와 건강	46
철교 놀이	51
좋은 그림책 소개	53
전시회를 다녀와서	54
여성대회 참가기	56
세상읽기	58
육아일기	60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63
음악교육	66
TV안보기 운동	69
정기총회 및 겨울 연수	71
보육계 동향	73
소식고 소식	73
편집부에서	75

개혁의 중심은 거대 담론보다 작은 문제 해결에 있다.	김정렬
보육인력의 수급 적절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9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 및 계획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국민건강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발전 과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아동보육종합정보망	김지희
특수보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영어반 교사의 경험이 주는 교훈	박은하·문유미
아픈 아이에 대한 간호	민용식
철교판 제작방법	편집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김랑희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전시회를 다녀와서	편집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5회 한국여성대회	편집부
지금의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용주삼촌을 이하할 수 없어야 한다.	주예민
육아일기	나은미·박미라
주감 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주감어린이집
주게스토케니를 통한 어린이 음악교육	박성순
아이들과 선생님이 만들어낸 TV안보기 운동	안미어린이집
제3차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스케치	편집부
보육계 풍향	편집부
소식과 소식	편집부
편집부에서	편집부

개혁의 중심은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문제 해결에 있다 - 장애아 보육문제

김정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최근 미래학자들은 새로운 천년시대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에 바쁘다고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90%는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은 손과 음식일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20년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생산력과 생산양식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대담론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IMF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업문제는, 제삼의 길은, 지구상에 유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그리고 정치권은 그렇게 그렇게 모두 허둥지둥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거대담론에 붙잡혀 있는 동안 작은 것 같지만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의 실업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슨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냐는 듯한 분위기에 그만 뒤통수가 가려워 진다. 그 중에 필자가 하고 싶은 테마는 장애아 보육문제이다.

지금 장애아와 그 부모는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니던 직장을 옮겨야 할 지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걱정과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에게 부탁하던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놀이방이나 개별적으로 맡기는 곳을 찾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친한 옆집이나 친구에게 잠깐씩 맡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장애아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할머니라고 다른 일반 손자처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다 똑같지 않다. 장애아를 돌보려면 일정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물리적인 환경과 도구도 갖춰져야 하고, 보육에 따른 욕구도 특별하게 요구된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아에게 있어서 영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 36개소에 1,203명의 장애유아가 있고, 보육교사 113명, 특수교사 118명 그리고 치료사 52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3년까지

이렇게 거대담론에 붙잡혀 있는 동안 작은 것 같지만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의 실업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슨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냐는 듯한 분위기에 그만 뒤통수가 가려워 진다. 그 중에 필자가 하고 싶은 테마는 장애아 보육문제이다.

100개소를 설치(99년 10개소)할 계획이 있다. 장애유아 출현율에 있어 중증 장애유아의 경우는 전체아동의 0.46% 정도로 약 18,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통계상으로 볼 때 장애아전담 시설의 경우 중증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7%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장애아동이 일반보육시설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종합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장애아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장애영유아의 경우 대부분은 방치되어 있거나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 계속된다면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나 사회 모두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우 경제·사회활동에 있어 중심역할을 해야 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모든 분야에 압축성장주의를 신봉해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를 찬찬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제문제도 그렇고 인권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는 거대담론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 과거의 교훈에서 보여주듯이 사람 하나하나의 소중한 인간다움을 유지해 주지 않고서는 정의(正義)도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것 같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사회라야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보육인력의 수급 적절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보육인력의 전문성평가

가. 자격기준의 의미

- ① 최하 등급의 자격기준은 최소한의 전문성의 질을 보장하여야 함.
- ② 자격 등급간에는 전문성의 질적 차이가 있어야 함.
- ③ 동일 자격등급 내에는 전문성의 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함.

II. 보육인력의 자격제도 사전교육 및 전문성 유지환경에 대한 평가

1. 자격제도와 사전교육의 평가

(1) 보육교사와 시설장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

가.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과 1급간의 전문성의 차이는 존재하나, 2급·1급 모두 전문성이 낮은 수준에 비교는 의미가 없다. 질적 차이보다 보육교사의 전반적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나. 시설장 : 시설장의 주요 4가지 유형(시설장 양성, 유아교육, 사회복지, 가정관리)은 시설장 전문성이 높은 반면 기타 자격기준의 해당자는 전문성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2) 사전교육의 평가

가.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 교수인력, 현장실습, 교육환경, 교육기간, 교육행정등 불만족으로 나타

1998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표갑수교수님 외4인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보육인력의 수급적절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연구한 내용이라 보육교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보고 부디 이평가와 제안을 지회·지부에서 토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남→보육교사교육원의 교과과정은 보육교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나.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

(전문)대학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통일적이지 않고 보호영역에 관한 교과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론과 실재의 연계성 부족과 실기 부족을 가장 문제로 지적함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은 더욱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보다 높은 질의 보육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성 유지 환경의 현황과 평가

(1) 개인적 차원

가. 직업만족도

- 보육교사는 직업만족도(3.87, 2급이 상대적으로 만족, 주 : 5점 평정척도로 4점 이상일 때만 만족으로 평가함)와 전문직으로서의 만족도(3.85)가 모두 낮음
- 시설장은 직업에 대해(4.03), 또 전문직으로서(4.06)만족하는 편임

나. 자기개발노력

- 보육교사는 개인적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그러나 시설내 자체연구모임과 타 시설과의 연구교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음(각각 46.7%, 57.6%)
- 시설장은 개인적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33.3%는 시설내 자체연구모임을, 61.5%는 타 시설과의 연구모임을 1개월에 1회 정도하고 있으며, 41.3%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1년에 1회 정도 참가.

(2) 보육시설 차원

가. 근로환경

1)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시설장은 평균10.4시간, 보육교사는 평균10.0시간이고(최대 17시간, 기타 민간시설)근무시간 만족도는 시설장(3.15)보다 보육교사가 (2.91) 더낮음.

2) 보수

- 시설장 평균보수-99만원(국공립119만원, 가정보육시설74만원), 보육교사 평균보

수-72만원(국공립87만원, 가정보육시설59만원)임.

- 보수에 대해 시설장, 보육교사 모두 불만족스러워함. 특히 시설장은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는 기타민간시설의 경우 가장 불만족을 나타냄.

3) 직업복지 및 기타 환경

- 직업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장보다 보육교사의 불만이 더 큼(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가장 높음)

나. 지원환경

- 시설장은 보육교사가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보육교사 응답), '대체 인력부족(66.3%)', '교육비(20.5%)부담' 때문에(교사 응답) 참여기회가 제한됨.
- 보조(복수)교사제 활용방안에 시설장 55.4%, 보육교사 50.7%가 필요성 인정.

(3) 사회적 차원

가. 제도적 환경

1) 재교육

- 보수교육경험 비율이 매우 낮음→법정 보수교육 규정이 유명 무실함.(법정보수 시간은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법정보수체계

- 현재는 자격, 학력에 상관없이 초임 1호봉이 동일하며, 호봉승급액도 낮음.
- 보육사업지침에 최고호봉이 30호봉으로 책정되어있지만 실제로 22호봉을(군복 무기간은 25호봉)초과하지 못함.
-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교사로 전직했을 때 그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였을 때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지급되는 수당 종류는 제한적이어서 보수차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나. 비제도적 환경

가.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에 대해 시설장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하며, 특히 전공자일 수록, 자격이 높을수록 더 불만족스러워 함.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격이 높을수록 불만족스러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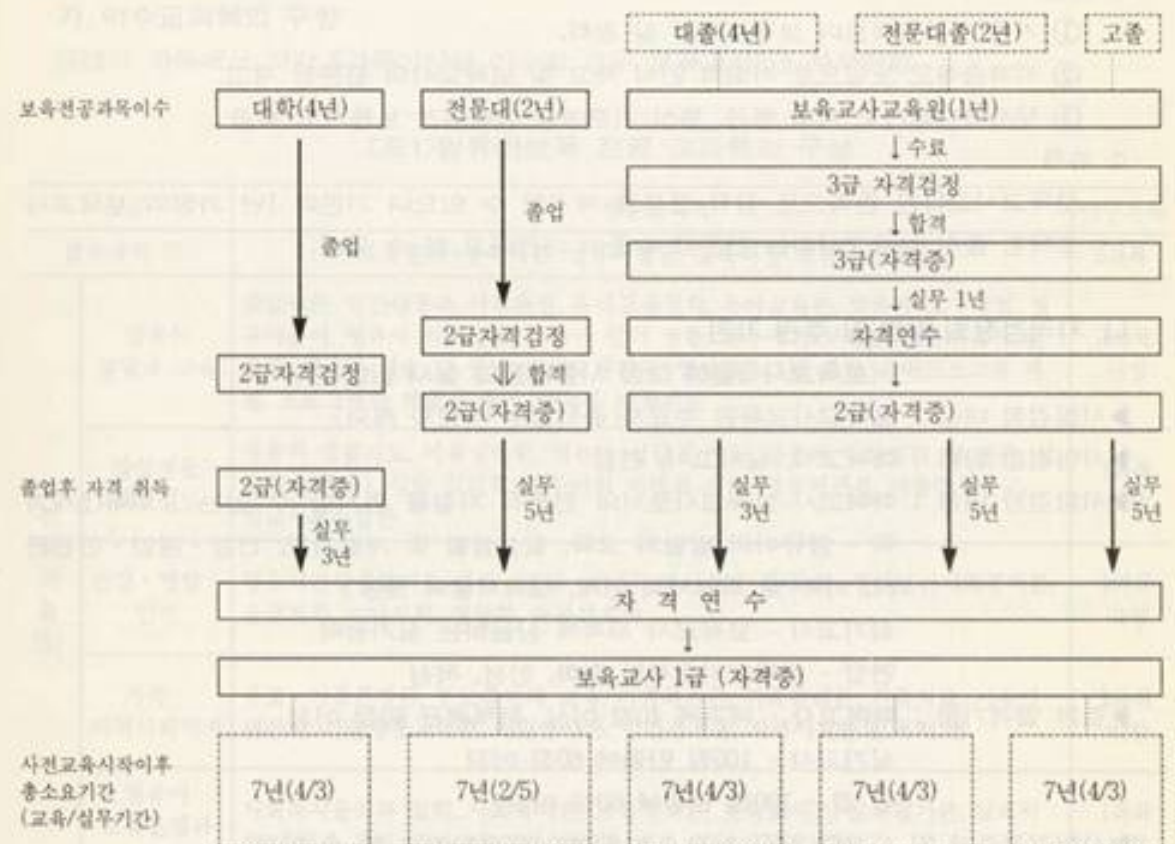
II.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 ① 보육인력의 전문적 질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재정비.
- ② 보육인력을 공급하는 사전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구성.
- ③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보수교육, 승급교육)을 강화.
- ④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근로환경 재정비

2. 보육인력 자격제도

(1) 보육교사 자격체계



註: 1) 승급을 위해 자격연수는 물론 법으로 규정한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함.
2) 3급 자격검정은 시험검정, 2급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을 원칙으로 함.

가.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인)

□ 주요특징

- ① 자격증 도입.
- ② 고졸, 전문대졸자와 대졸자 자격등급 차별.
- ③ 자격연수제도 도입.

- ④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 개방.
- ⑤ 필수교과목 선정,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
- ⑥ 현재의 보육교사 2급은 보육교사 3급에, 1급은 2급에 조정하여 3단계로 자격등급 구분.
- ⑦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자에게 보육교사3급 자격부여 보조교사로 활용.

□ 장점

- ① 기존 자격체계보다 보육교사의 질 강화.
- ② 자격증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 ③ 무자격자에게도 기회 제공, 특히 기존여성 인력에게 노동기회 제공.

□ 과제

보육교사교육원 존속으로 질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기존의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 보육교사와는 전문성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나. 자격검정의 방법 및 주관 기관

〈보육교사 3급에 대한 시험검정의 실시 방법(안)〉

- ▶ 시험검정 대상 :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출석일수 미달자 제외)
- ▶ 시험검정 방법 : 학력고사, 실기고사, 면접
- ▶ 시험검정 내용 : 학력고사-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교과목(5개과목 -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일상생활 및 개별지도, 건강·영양·안전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보육시설의 운영)
실기고사 - 보육교사 자격에 상응하는 실기능력
면접 - 보육교사로서의 철학, 인성, 적성
- ▶ 검정 합격기준 : 학력고사 - 매과목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
실기고사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면접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시험검정주관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보건복지부(위탁기관 둘 수 있음)

〈보육교사 2급에 대한 무시험검정의 실시 방법(안)〉

- ▶ 무시험검정 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로 필수교과목 10과목이상을 이수한 자(실습은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만-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함-을 인정)
- ▶ 무시험검정 방법 : 이수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기준으로 무시험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함

▶ 무시험검정 내용 및 합격 기준 : 이수 교과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매과목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인 자

▶ 무시험검정 주관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보건복지부(위탁기관 둘 수 있음)

다. 경과조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3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의 보육교사 1급은 새로운 자격체계의 1급으로 그 자격으로 인정하여 주고, 보육교사 2급은 3년내 새로운 자격체계의 보육교사 1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이수교과목의 구성

가. 이수교과목의 구성

아래의 과목에서 각각 5과목이상을 이수할 경우 보육교사2급 자격인정.

〈표1〉영유아보육 전공 교과목의 구성

구분	전공교과목	이수과목	
필수과목 (5)	보육론, 아동복지론, 영유아발달, 보육과정(계획), 보육실습	5과목	
선택과목 (5)	영유아 발달과 교육	발달이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유아교육철학, 유아교육론, 영유아 교수방법, 영유아놀이, 영유아 사회생활, 영유아 언어 생활, 영유아 탐구생활, 영유아음악 및 율동, 영유아 미술 및 공작, 교과교재연구, 영아프로그램 개발, 유아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방과후 아동지도	1과목 이상
	일상생활, 개별지도	영유아 생활지도, 아동심리학, 영유아 상담과 지도, 영유아 임상심리 및 진단, 심리검사(측정), 상담 심리학, 특수아의 이해와 지도, 영유아관찰, 아동행동연구, 학교사회사업론	1과목 이상
	건강·영양·안전	영유아건강생활지도(건강·영양·안전), 정신건강(위생)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응급처치, 소아의학, 영양학, 아동간호학	1과목 이상
	가족·지역사회연계	부모·아동관계론, 부모참여와 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가족치료, 가족자원관리, 가정생활교육론, 자원봉사론, 인간관계론, 지역사회관계(복지)론	1과목 이상
	영유아 보육운영과 실제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평가론,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 유아교육기관 운영과 관리, 공공가정경영론	1과목 이상

- 註 : 1) 보육실습은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제외), 종일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상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실습만을 인정
2) 교과목 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
3) 학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함. 단, 대학원의 경우 과목당 2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함.

나. 이수교과목 조정에 따른 변화

-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기회 확대와 전문성 강화.

- 기존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는 교과과정의 변경 없이 실습을 지정한 곳에서 하였을 경우 2급자격 취득.
- 보육교사교육원과 (전문)대학 교육의 연계.

다. 보육인력의 지위체계 및 자격기준

〈표2〉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등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자로서 3년 경력 후 자격연수를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보육교사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유아보육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유아보육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유아보육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유아보육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유아보육전공 교과목 중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함. 6.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7.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8.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년 경과 이후 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위의 1~5호에 해당하는 자로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고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

註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아동복지 또는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표3〉 보육시설 종사자의 지위체계 및 자격 기준

지위체계	자 격 기 준
보육시설장*	1. 보육시설의 부시설장의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영유아 보육사업 실무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2. 선임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4년 이상의 영유아보육사업의 실무 경력과 소정의 자격 연수를 받은 자 3.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영유아보육사업 실무경력과 소정의 자격 연수를 받은 자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의 실무 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5.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연수를 받고 유치원 원장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소정의 자격 연수를 받은 자 6.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6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7.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1)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부시설장* (신설)	1. 선임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영유아보육사업 실무 경험과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2.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4년 이상의 영유아보육사업 실무 경험과 소정의 자격 연수를 받은 자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4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의 실무경험과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1)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 등록을 한 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5.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연수를 받고 유치원 원감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소정의 자격 연수를 받은 자
선임보육교사* (신설)	1.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영유아보육사업 실무 경험과 소정의 자격 연수를 받은 자
보육교사	1. 보육교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 소지자
보조보육교사(신설)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
가정보육시설장	1. 영유아보육사업 실무경력 1년 이상이면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註 : 1) 관련학과라 함은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사업)학과, 가정관리학과 등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유치원포함)에서의 실습을 포함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시설장의 연령은 최소 만 30세 이상으로 제한함

** 부시설장 및 가정보육시설의 연령은 최소 만 27세 이상으로 제한함.

부시설장은 보육시설 라형(정원 131명)이상의 경우에 배치하며 그 이하는 권고사항임.

*** 보육시설 다형(정원 104명)이상의 시설에서는 선임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이하는 권고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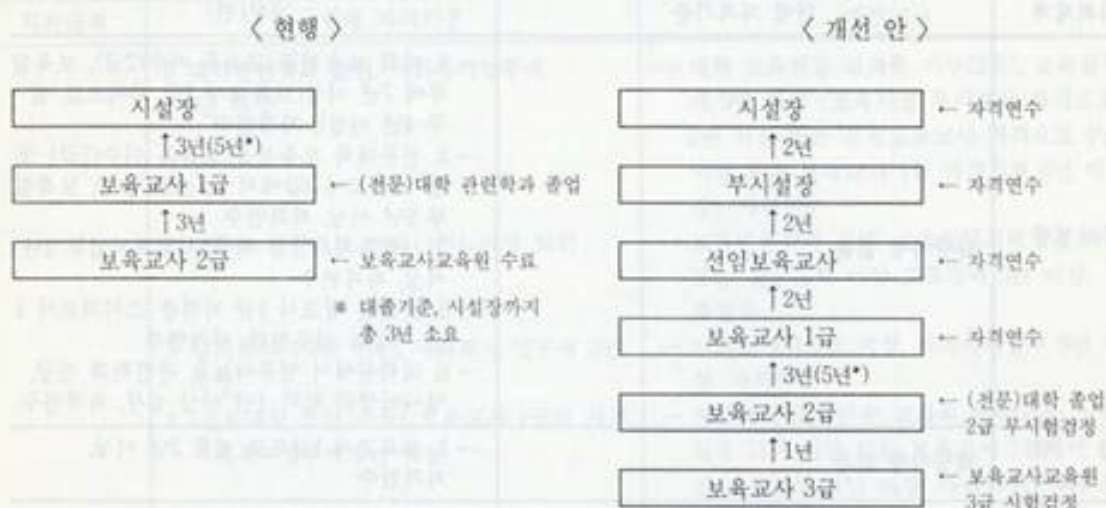
〈표4〉현행 자격체계와 개선안에 대한 비교

지위체계	현행 자격기준	개선(안)
시설장	1. 대학관련학과 졸업,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 대학 보육전공 교과목 이수(2급), 보육실무에 9년 이상 (보육시설 부시설장 자격으로 2년 이상 또는 선임보육교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으로 6년 이상), 자격연수
	2. 대학원 관련학과 전공, 석사 이상 학위	→ 보육관련학과 전공, 보육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경력 3년 이상, 자격연수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사회복지업무 6년 이상, 자격연수
	4. (전문대학 또는 승급) 보육교사 1급의 자격,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 전문대학 보육전공 교과목 이수(2급) 보육실무 11년 이상 또는 보육교사 3급에서 승진 보육실무 11년 이상, 자격연수
	5. 의사, 1년 이상 진료경력	→ 삭제
	6. 영양사,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 삭제
	7. 간호사,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 삭제
	8.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 삭제
	9. 유치원 정교사자격,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6년 이상 실무경험과 소정의 자격연수
	10. 유치원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 삭제
	11.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원감에서 승급한 유치원 원장자격, 자격연수
	12. 초등학교 정교사자격,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 삭제
	13. 초등학교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 삭제
	14.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 삭제
	15. 중고등학교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 삭제
	16. 7급 이상의 공무원, 사회복지 행정업무 3년 이상	→ 삭제
	17. 시설장 양성교육 수료	→ 가정보육시설장은 영유아보육사업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육교사 2급 이상
	18.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지위체계	현행 자격기준	개선(안)
부시설장	해당사항 없음	→ 1. 대학 보육전공 교과목 이수(2급), 보육실무에 7년 이상(보육교사 1급 자격으로 실무 4년 이상), 자격연수 → 2. 전문대학 보육전공 교과목 이수(2급) 또는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보육실무 9년 이상, 자격연수 → 3.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사회복지업무 4년 이상, 자격연수 → 5.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종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자격연수 → 6. 대학원에서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전공, 석사학위의 학위, 1년 이상 실무, 자격연수
선 임 보육교사	해당사항 없음	→ 1. 보육교사 1급으로 실무 2년 이상, 자격연수
보 육 교 사	1급	→ 1. 전문대 관련학과, 관련 교과목 이수 → 2. 대학 관련학과, 관련교과목 이수 → 삭제 (보육교사 2급으로) → 삭제 (보육교사 2급으로) → 대졸, 보육교사 2급으로 실무 3년 이상, 자격연수 → 전문대졸, 보육교사 2급으로 실무 5년 이상, 자격연수
	2급	→ 1.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 삭제 (보육교사 3급으로) → 전문대, 보육전공, 교과목 이수, 무시험검정 → 대학, 보육전공 교과목 이수, 무시험검정 → 보육교사 3급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자격연수
보조교사(3급)	해당사항 없음	→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시험검정
가정보육 시설장	해당사항 없음(다만, 시설장 자격증 보육교사 2 1급은 40인 미만시설 운영)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보육경력 1년, 소정의 재교육

- 註: 1) 시설장의 연령은 최소 만 30세 이상으로 제한함
 2) 부시설장 및 가정보육시설의 연령은 최소 만 27세 이상으로 제한함
 3) 부시설장은 보육시설 라형(정원 131명) 이상의 경우에, 선임교사는 보육시설 다형(정원 104명) 이상의 경우에 상기의 자격에 준해 배치하여야 하며, 그 어하는 권고사항임.
 4) 농어촌시설, 벽지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위의 자격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

〈그림 2〉 현행 지위 및 자격체계에 따른 소요기간 비교



※ : * 전문대졸 보육교사 1급과 승급한 보육교사 1급은 5년의 실무경력 필요
보육교사 3급이 보육교사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를 거침

3. 전문성 유지환경

가. 재교육제도

1) 재교육 체계

- 재교육을 보수교육(동급내)과 자격연수(승급 위한)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강화.
- 재교육을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실시.

〈표5〉 보수교육 및 자격연수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간	주관 기관	교육방법
보수교육	40시간 이상/1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	위탁 기관 주최 교육 (25%), 워크샵(30%이내), 학회참가(15%이내), 자체연구수업 발표회(15%이내), 방문보수교육(20%이내), 통신교육(15%이내)
자격연수	8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가 위탁하는 기관	별도로 정하는 교과과정에 준하여 보건복지부가 위탁하는 대학 및 대학부설교육원 등에서 교육

※ :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연수는 해당시기에 받음.

2) 재교육 교과내용

- 보수교육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편성.
- 자격연수는 지위체계에 따른 새로운 역할수행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구성.

나. 근로환경

- 1) 근로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보육시설 평가제 도입.
- 2) 보수체계의 정비 및 보수수준의 상향 조정.
- 3) 최소법정아동수의 준수와 하향 조정 검토.
- 4) 직업복지의 향상.

김대중 정부 보육정책 1년 평가

정의연 외장

〔 지난 2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중 정의연회장님의 보육사업평가 한 부분을 전문 실습니다.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된 후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은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시작된 보육사업은 이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육의 공공성의 확대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대중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육사업의 평가는 이미 그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보육사업의 전반적 평가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작년 1년 동안 획기적인 보육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분적인 법령개정과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확연하게 내릴 수 없으나 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보육사업 역시 경쟁의 논리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겨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1997년 정부의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이 끝난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일반적 보육현황과 전반적인 보육정책을 점검해보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전망해보도록 한다.

1. 보육현황

(1) 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98년 3/4분기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17,305개소에 보육아동은 550,931명이다. 이는 정부의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이 시작된 '95년과 비교해 볼 때 시설수로는 52%가 증가되었으며 아동수에 있어서는 53%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표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시설수의 증가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시설보다 대부분 민간시설의 확충으로 이루어져 실제 정부의 보육정책에 있어 양적확충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3개년계획중 공공시설의 증가는 3,150개소 목표에 1,673개소가 증가하여 53%밖에 달성되지 못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은 1,440개소 목표에 121개소만 확충되어 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시설의 경우는 3,000개소 목표에 7,134개가 확충되어 238%의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다.(표2 참조) 3년동안 확충된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79.9%나 되고 있다.

(표1) 연도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95	'96	'97	'98 3/4 분기	비고 ('95 대비)
시설수	9,085	12,098	15,375	17,305	52% 증가
아동수	293,747	403,001	520,959	550,931	53% 증가

(표2)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의 실적 (단위: 개소, %)

	'95			'96			'97			누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	2,246	2,460	110%	2,696	3,119	116%	2,648	3,349	127%	7,590	8,928	118%
공공	1,000	522	52%	1,505	555	33%	1,100	596	54%	3,150	1,673	53%
민간	800	1,888	236%	1,200	2,428	202%	1,000	2,172	217%	3,000	7,134	238%
직장	446	50	11%	446	30	7%	548	121	8%	1,440	121	8%

(2) 보육사업 예산

보육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표3)에서 보듯이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이 시작된 '95년에 많은 증가를 보이고 계획이 마무리된 다음해인 '98년에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개년계획이 끝나면서 예산은 그전의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이는 '양적확충에서 질적수준의 향상'이라는 정부정책의 기조변화를 담보할 수 없도록 이미 예산이 배정되었음을 나타낸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적확충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편성은 그 이전 수준으로 동결되어 아쉬움을 준다. 보육사업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재교육과 유사직종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고려,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위한 고려,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표1) 보육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년도	'95	'96	'97	'97	'97
총예산	2,000	2,375	1,330	1,080	1,120

(3) 보육비용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자유민주주의 형식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동보육에 있어 이처럼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보육시설의 영리를 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준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시장기능과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보육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대부분이 보호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육시설의 재정은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비용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단가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별지원 두가지가 있는데 표준보육단가의 경우 '98년 현재 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표준보육료가 국공립시설 109,000(3세이상)에서 213,000(2세미만), 민간시설 148,000(3세이상)에서 304,000(2세미만), 가정시설 179,000(3세이상)에서 325,000(2세미만)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보육비용의 증가분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부분에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표준보육단가의 산출에서 예산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실제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의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과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민간법인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비, 운영비, 개보수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표준보육단가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는 전적으로 부모부담이어서 부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동별 지원의 내용은 법정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육료의 전액면제, 기타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수준이하의 가정의 자녀에게 보육료를 50%감면해주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은 '98년 현재 3인가족의 경우 110만원까지, 4인가족의 경우 120만원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선이 현실적이지 않아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4)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은 '98 3/4분기 현재 전체보육시설 중 8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99년 예산중 1억원이 채 못되고 있는 형편이다. 교재교구비로 연간 1회 5,000여개소의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

2. 보육정책의 과제

(1) 보육교사관련 정책의 개선

우선적으로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질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에 대한 질적 강화 및 보육교사자격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보육교사 질의 관리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사직종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입안한 보육교사관련 처우개선은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고려되었다. 그러나 다수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이러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의 경우는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중 방과후 보조교사들의 처우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아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형편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교사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교사의 인건비와 비교할 때 61.5%정도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의 경우는 국공립시설의 교사의 68%정도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보육의 전반적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적어도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일부라도 정부지원이 되어야만 한다.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사업의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끌어 들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2) 보육재정의 개선

우선 표준보육단가의 산출시 현실성 있는 단가의 산출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살펴듯이 현재의 표준보육단가의 전체적인 예산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실제 소요되는 보육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바로 보육의 질의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비용의 증가분을 실제 부모들로부터 수납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므로 정부의 책임하에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비용 지원을 보면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두가지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그 기준선이 비현실적이라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저소득층의 지원은 현재 도시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에 보육비용을 경감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 현재 3인가족기준 가구원전체 수입이 110만원 이하인 가정에 이에 해당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대부분 맞벌이 가정임을 감안할 때 이 기준선은 매우 낮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111만원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원기준선의 현실화, 또한 가구당 소득별 차등을 보다 반영한 보육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즉 지원기준선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단계로 차등보육료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더 많은 저소득층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높은 민간보육시설의 점유율을 볼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사적시장에 맡겨질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관건이 된다.

현행의 지원체계는 주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97년 현재 전체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에 이르고 있고 보육아동의 면에서는 약 60% 정도를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의 보육사업이 일반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제공이야 한다고 하면 민간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민간보육교사들의 낮은 처우조건을 볼 때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립주체는 민간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계 최초의 연봉제 논의 - 보육계에 연봉제가 도입된 거예요?”

한국보육교사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

지난해말 까지 보육교사 임금체계와 관련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는 보육의 질적성장을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수년내로 유치원교사 수준화 하는 것 이었으나 '99년 들어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에 혼란과 격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자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년연속 동결방침은 IMF구제금융에 따

큰 국가경제 위기의 결과로 보아 어쩌면 교사들 사이에서 이미도 예상되고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몇주후 새로이 통보된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 지원기준 ('99.1.27)은 제도의 제안배경이나 절차상 합의과정에 대한 미심쩍음을 남기며(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달 소식지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계 최초의 "연봉제" 도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날아들었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내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아무리 사기업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지만 "연봉제"에 대한 개념정의 한번 없었던 과정에서 정책기조가 일방적으로 급진화하자 이를 일선현장에 전달집행해야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의 이해도에 따라 세부방침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갖가지 소문을 더해갔다. 또한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믿을만한 소식통" 하나 갖지못한 보육교사들의 불안심리는 커져갔으며 이것은 당장의 임금수준의 가감여부 문제도 있었겠으나 그보다는 향후 보육교사의 신분이 "계약직 사원"으로 변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모아졌다.

이러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전달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운영자와 관련 공무원들간에 일차합의 된 세부방침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첫째, 퇴직금제의 완전중단과 매년 능력별 연봉계약을 합의한 Y구의 "완전연봉제안" 둘째, 보육시설 종사자의 신분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므로 기존의 임금체계를 지속하자고 결의했던 S구의 "연공제계 유지안" 셋째, 가장 많은 구에서 합의되었던 안으로서 제수당을 없애고 연공별 호봉제는 지속하되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의 비율을 구별로 일률감액 조정한다는 "총액임금제안"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입장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요인을 분석해보면 관련공무원들이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복지마인드를 얼마나 갖는지? 어린이집 원장들이 타종사자들과 일반층의 동반자의식을 갖는지? 지역별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아모집 상황(정원충족 비율)은 어떤지? 어린이집 교사 평균호봉이 5호봉 이상이 되면 적자편성을 피할 수 없는 현 재정구조를 볼 때 각 시설의 장기근속자 수가 얼마인지? 등이 주요요인이라 판단된다.

결국 이런 혼란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에서 '99보육종사자 월보수 표준안 및 지원기준을 추가로통보함으로써 세번째안인 "총액임금제안"으로 단일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27일자로 지시된 기준선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총액이 아니라 국고보조 총액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조 총액 범위내에서 기존에 인정받던 호봉별 월보수와 사회보험부담금(의료보험 1.5%, 국민연금 4.5%)을 지원하고 퇴직금은 어린이집에서 전액 자부담한다는 안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인건비 수준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시설장 9.7%, 보육교사 8.7%의 감액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비율은 평균감소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난해까지 가족수당이나 영아수당,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온 교사의 감소폭은 연 200만원 이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느끼는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 실천과정에서 국가책임의 축소와 민간이양의 문제이다. 즉, 현재의 조치는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짜집기된 방침이지 결코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정책이란 점과 "인건비 책정의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 위기의 책임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간의 갈등 속으로 전가하는 기본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금번 "연봉제 파동"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운영자가 있었다면 이는 IMF로 인한 운영난을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운영자의 자기이해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금번 기회를 시작으로하여 원장간 담합을 통해 보육교사의 신분불안정과 보수삭감을 관행화할 소지가 있다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세번째로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이하 한보련)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다. 만약 한보련이 밑으로부터 지지와 신뢰 속에서 보육계를 대표하는 조직이었다면, 그래서 금번 조치에 따른 현장의 동요와 향후 전망을 고민하는 조직이라면 금번 조치에 이렇듯 "병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책임감 있는 실천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보고자 하며 본 원고에서는 보육교사 임금체계의 현주소에 대한 소개 정도로 그칠까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사태는 일단 지난 3월 6일 이후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며, 현장의 동요에 긴장을 느낀 정부는 현조치가 "연봉제"와는 무관한 임금체계임을 강조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애써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향후 사회복지계에도 "연봉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이번 기회에 회원들에게 "연봉제"에 관한 기초정보를 나누는 것도 유의미 하리라 판단된다. 물론 앞으로도 밝혀지겠지만 연봉제의 도입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잣대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본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단지 "보육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 직종에 대하여는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이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는 의지가 있기에 다음번 소식지를 통해서 는 보육교사의 관점에서 본 연봉제파동 평가를 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향후 "제2차 연봉제논쟁"을 대비하면서 회원들이 "연봉제"의 개념과 국내 도입배경, 그리고 바람직한 도입절차와 고려요인 등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연봉제 탐구"의 시간을 갖고자한다.

지난 '97년 이후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계속되는 기업활동 위축과 경영난을 타개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임을 감조하며 속속 새로운 임금체계인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의 IBM,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의 소니사 등의 초우량 기업들도 "연봉제" 도입을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과 우수한 인재확보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는 한다. 이는 최근 국내 30대 재벌중 23개사(76.6%), 100대 기업중 300개사가 "연봉제" 도입을 소리소문 없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봉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봉제란 “개별 직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한 것을 근거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는 성과중심형 임금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임금체계가 그사람의 직급, 근무경력등을 반영한 사람중심, 노동의양(시간) 중심의 임금체계라면 연봉제는 능력과 업적이라는 일중심의 임금체계로서 연공이 아닌 성과(일의 질)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체계라고 이해하면 쉽다.

기업들의 일반적인 연봉제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건비 부담절감방식의 측면이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현재의 임금체계하에서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 관리를 단순화하며 경영실적에 따라 연동한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금번 연봉제 파동에 일부 운영자들이 동요하였던 배경에도 장기근속자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적자 부분을 교사부담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했던 운영자의 이해가 읽어진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하여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사외유출을 방지하고자 임금관리에 탄력성을 가지며, 내부인력의 성취동기를 만들어내고자 도입하는 경우이나 이런 목적은 첫 번째 이유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 연봉제가 경영실적과 관련도가 높은 영업직 사원들에게서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런 입계 납득할 것이다. 연봉제 전후의 경영환경/전략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여기서는 연봉제 도입절차와 관련하여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적한 연봉제 설계방안을 인용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연봉제 도입절차 및 보육환경에 맞는 단계별 고려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1 단계 - 연봉제 설계를 전담할 전담반을 구성한다.

금번 연봉제 파동에 혼란함이 더해졌던 것은 바로 보육계의 주객관적인 환경을 알고 있는 내부전문가들의 사전연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도도입이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재논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전문가와 행정관료, 그리고 적용대상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사 대표의 참여 속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그안에서 연봉제 설계상의 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사전연구가 있어야만 연봉제 도입에 따른 수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단계 - 도입목적은 명확히 한다.

기업체들의 일반적인 연봉제 도입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겠다. 단 기업상황에 따라 연봉제 도입의 목적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단지 총액인건비 절감만

을 위한 것일때는 오히려 직원의 불만을 야기시켜 능력발휘를 방해하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종결정된 임금기준의 주목적은 임금을 총액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수증가와 국고 지원 절감에 있었기에 이는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보육계의 현재적 과제와 모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도입목적이 불명확하고 도입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의 부조화는 물론 적용대상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라도 목적설정시에는 아동보육의 질향상에 부합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동기부여와 경쟁력 강화”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단계 - 연봉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의 선정은 도입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봉제 적용대상 선정시 고려사항은 먼저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종인가를 살펴야 한다. 즉 개인별 업무목표와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의 재량권이 있는 직종이라야 하는데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공동모금법” 시행 등으로 이후에는 각종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평가요소와 실적분배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또한 수혜자 중심관점에서 부모만족도 등을 이용하여 측정될 가능성 또한 안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생산직 또는 단순사무직 사원 해당)인 경우는 연봉제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존재여서 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형편이다.

제 4 단계 - 연봉 임금제도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임금체계를 결정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로 비춰질지 모르나 실제 보육교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며, 보육시설 운영자에게는 총운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내역의 문제이며, 정부로서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유능한 교사확보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적용대상층에 적합한 방식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현행 임금체계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현행 보육교사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보면 유사직종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간의 임금차이, 이로인한 우수 보육교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으므로 향후 도입될 새로운 임금체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타당할 것이다.

제 5 단계 - 연봉액 결정과 가감기준 설계

현재 한국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 방식은 “서구식”과 구별되는 “한국식 연봉제”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공급제를 일부 인정하고 여기에 능력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연봉의 구성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의무 지급항목이 무엇인지, 연봉적용대상자의 임금에 대한 일반적 정서는 어떤 것인지, 성과에 따른 차별보상의 수용능력이 어떤지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자력수당이나 퇴직금지급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연봉+제수당+업적연봉”형

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보육교사의 위상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계약직사원이 된다면 “서구식 연봉제 또는 완전 연봉제” 또는 “기본연봉+업적연봉형”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완전연봉제란 흔히 프로야구 선수들이 받던 연봉형식을 상상하면 되는데 이는 일년마다 구단주와 연봉에 대해 개별협상을 하고 이에 따라 매월 12분의 1씩 지급 받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제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없앤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신분을 “정규직원”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고용안정과 더불어 연봉제 도입시 임금구성 항목을 결정짓는 주요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봉액의 가감을 결정짓는 것은 동일업종 직종의 임금시세와 비교하여 대상계층별·호봉별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등에 의해 연봉수준의 운영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기본급의 가감 결정기준과 업적연봉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봉제 도입초기에는 감봉이 없거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을 불문율화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동결만으로도 실질임금 하락효과가 나타나므로 업적부진자에 대한 경고효과가 충분하다고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 6 단계 - 업무평가기준 및 평가요소를 설계하라.

연봉제란 직원의 업적과 공헌도에 비례하는 업적중시형 임금체계이므로 그 성패는 평가제도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활발한 의사소통 구조,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통로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 7 단계 - 연봉의 지급방식 선택

이는 보육교사의 생활패턴이나 동일업종의 임금지급관행 및 업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적 성격을 고려한 탄력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나 한국 정서상 매월 분할지급 방식이 정착되리라 예상된다.

제 8 단계 - 연봉제도로의 개정시기 및 절차 마련

연봉조정은 개인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므로 업무평가기간과 일치하는 형태로 진행되거나 정부의 회계연도나 개인의 임면일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또한 연봉결정 절차는 개인별 업무목표의 설정을 위한 면접으로부터 시작해서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평가 및 연봉결정에 이르는 치밀한 기간이 필요하다.

제 9 단계 -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의 처리방법 검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사용주가 현재 지급할 임금을 퇴직후 지급한다는 후불임금적 성격

을 가지며, 평균임금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연봉제 도입시 퇴직금이 크게 변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수당,보상금 등이 연봉에 삽입되는 경우는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초래하게 한다. 기업들은 퇴직금의 변동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34조에 의거 근로자 개개인이 정산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이후 연봉제 도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임금조건의 보완책인 퇴직금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료와 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제 10 단계 - 취업규칙 변경과 연봉제 급여규정 작성

노동부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분쟁발생을 막기위하여 “개별 연봉액 및 소정근로일수,근로시간,연봉지급방법,상여금 및 수당의 취급,퇴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근로계약을 작성토록 고시하고 있는데 만약 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된다면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분석결과에 따른 “취업규칙”모델이 제시되고 합의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혹시 정부에서 “제2차 연봉제 도입과동”을 구상하고 있다면 필히 참고하길 바라며 연봉제 도입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은 정리해보는 것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첫째, 모든 사원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임금도 많이 받는다”는 성과결과를 인정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평가제도 및 문화정착이 없다면 오히려 직원들의 불만만을 초래하여 회사 전체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임금결정 기준을 노동시간이나 양이 아닌 질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넷째, 투명경영을 통해 노사간에 합의된 경영목표와 실적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연봉제 적용대상 선정에 점진적 확대를 통해 기업환경에 맞는 연봉제방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는 연봉제의 목표실현과 과정에서의 경영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99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 및 계획을 소개합니다.

1. '99 사업방향

1)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교사재교육과 현장연구를 실시하고 특수보육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지난 몇 년간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육교사나 운영자들의 준비정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특수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미비를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정책과 제도면에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수보육에 대한 수요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담시설뿐만 아니라 일반보육시설에서도 특수보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해의 주요 사업방향으로 특수보육에 대한 교사교육과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의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각종 강좌나 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특수보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고 지부/지회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모임, 연구모임 등에서도 일상적으로 특수보육관련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지방자치제의 정착후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추

세에 있고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도 많은 부분 지방정부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보육제도와 정책에도 일정 변화가 왔는데 이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는 있되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서는 동일한 자격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음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자체가 없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실시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체크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역에 맞는 정책건의안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부/지회의 조건에 맞는 실천방안을 채택, 활동한다.

3) 지부/지회간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개별 지부/지회의 모범적인 사업을 공유, 확산시킨다. 또한 각 지부/지회의 조건에 맞는 회원관계 및 조직운영체계를 마련,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회원확대에 힘쓴다.

2.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1)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및 현장연구사업을 실시한다.

▶ 현장연구 공모전 및 발표회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연구와 실천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성과를 격려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실천하는 보육교사의 상을 그려내며 그 연구성과를 다시 현장

으로 확산시켜 보육의 질향상에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칭「현장연구공모전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훈련

특수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특수보육의 현황, 아동기의 현대적 경향과 특성, 영아·장애아·학령기아동에 대한 이해, 각각의 일과 및 환경구성의 원리, 각각의 실제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아직 특수보육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자리매김되지 못한 우리상황에서 독일의 슈타이너교육 관계자들을 초빙, 슈타이너 교육철학에 기반한 특수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지부교육사업의 기획 및 운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워크숍

교사재교육관련, 회원재교육관련, 아동교육관련 등 전반적인 교육관련사업에 대한 기획 및 운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부/지회별로 교육담당 주체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2회의 워크숍을 실시한다.

▶ 지부/지회의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지원

▶ 특수보육 분야와 관련하여 연행 제도와 정책을 평가하고 이의 개선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 개최

▶ 여름연수

권역별 여름연수를 실시한다.

2) 경제위기 이후 보육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점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에 맞는 제도개선안과 정책 건의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 지부/지회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여 미비점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각 지부/지회의 역량에 맞는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회원교양, 제안서 및 간담회, 공청회 및 토론회, 행정부처 면담 등)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정책과 제도의 점검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마련한다.

▶ 지역내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꾀한다.

3) 지부/지회의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비지도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지역의 지도력 강화훈련의 일환으로 예비지도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경기지부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경기지부 건설의 토대로 최소 3개 이상의 지회조직 건설을 지원한다.
- 경기지역 교사들의 간담회를 조직하여 향상적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 지부/지회간 정보 및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간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99년을 이끌 지부장을 소개합니다.

강선의 (전북지부장)

전북지부장 강선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주 금암어린이집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나를 무척 좋아했고 잘 따랐습니다. 나 또한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귀찮거나 싫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 교사가 되었나봅니다.

7년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마냥 즐거웠고, 아이들에게 나 어릴 때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추억을 돌이켜보면, 시골에서 자랐던 나에게 있어 장난감이란 자연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그 추억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아이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친구, 자연, 문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도록 노력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박찬주 (부산지부장)



회장이 되고 부터는 갖고 싶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팩스기, 복사기, 컴퓨터를 주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고맙게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결에는 없지만, 곧 이 세가지가 마련되어 정착할 아기자람터 놀이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박찬주(토끼띠, 미혼)인사드립니다.

살면서 조금이나마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비영리 보육시설 후원자로부터 시작한 나의 보육교사 생활이 해

수로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보육교사로서 항상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고맙게 가지며, 보육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던,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가 부산보육교사회 회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울한해 서로 만나 힘이 되는 조직, 발전하는 조직, 각자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한 회원들이 그 속에 있는 튼튼한 우리 부산보육교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오윤정(서울지부장)

나의 이름은 오윤정이고 나이는 서른넷입니다. 결혼 한지 5년이 넘었고 공부하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나의 생각의 대부분은 공부입니다. 대학졸업 9년만에 다시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생활 총정리하는 문제지를 받은 느낌입니다. 이외에 또 하나의 일은 서울지부 일입니다. 공부와 이 일의 차이를 이야기해보면, 공부는 혼자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공부만 하면 됩니다. 서울지부 일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만나면 그 다음엔 두 사람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일이 생깁니다. 이런 만남이 지금 제가 하는 공부만큼 설렘으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주영(수원지회장)

나이는 70년 4월 20일생으로 개띠여자입니다. 남편과 9개월된 아들이 있고요, 평동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시작한지 올해로 7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눈을 팔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지만 또한 커다란 활동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수원이기에 나름대로 아쉬움과 반성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이 꾸며진 평동어린이집의 교사로서, 한국보육교사회 수원지회 지회장으로서 울한해도 열심히 살아보려나. 내실있는 소모임과 내년부터 일할 뽕뽕(?)후임 지회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지부 건설에 큰 힘이 될수 있는 수원지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광주, 전남지부장)

꽃꽂이 붐내음과 함께 전국에 계시는 교사회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전남보육교사회 신입지부장 이정미입니다. 현재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2·3세 반을 담당하고 있고 네살박이 딸을 둔 아줌마이기도 하답니다.

당선소감으로 울한해 신나고 재미있는 모임 풍토를 만들어 보자고 회원들께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말만 그렇고 모이면 어깨 놀리고 하종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해볼

니다.

아울러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여러분 모두도 교사회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외영 (인천지부장)

부른 꿈을 안고 '99년 인천지부 회장이 된 32세 예비엄마입니다. 작년에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하던 28평의 아담한 어린이집을 정리했을때 그곳에 남아있던 아이들 생각에 많이 미안했었는데...

저는 좋은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것 지금도 여전히 좋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고쳐나기려 노력하는 인천지부 나아가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한국보육교사회 전회원을 결속하여 아동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올바른 정체성 획득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발전 과제

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외

1.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과 그 의의

1) 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

국민건강보험법의 핵심은 의료보험의 관리 운영과 재정조달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일원화한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건비의 절감과 규모의 경제 달성에 의한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 위험분산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보험조합간 그리고 의료보험제도간 재정 격차를 없애므로써 보험적용 수준의 하향평준화라는 보험적용 확대의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부담 저급여' 정책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를 통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약과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일단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의 중요한 원리의 하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자가 단일화되면서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통합일원화가 갖는 이념적 중요성일 것이다.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중시한다면 통합의료보험은 '국가책임'을 더 중시하는 제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보험적용 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적용의 범위를 진단, 치료에서 예방, 건강증진,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였다. 이는 의료보험법의 이름을 건강보험법으로 바꾼 데서도 잘 나타난다. 상병수당의 제공이 임의급여의 형태로나마 법에 규정된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이는 과거 의료보험이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졌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예방부터 재활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국민의 민주적 참여기전 확대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설

현장교사들이 사회전반에 대한 의식과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고백을 하곤합니다. 우리의 제반 여건상의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호부터 시사,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교양을 할 수 있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관심이 집중되어 이 문제를 꾸준히 주장하여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재정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료의 조정 등 보험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참여기전을 마련하였다. 이런 노력은 의료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위원회 기능 및 실질적인 여론 주도 계층의 참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4) 보험심사기구의 독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도록 하여 심사기구를 완전히 독립하였다. 심사기구의 독립은 의료계의 오랜 염원이며 의료계는 심사기구의 독립을 통해서 심사과정에 대한 보험자의 영향력 차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나, 심사기구 독립이 심사기구에 대한 의료계의 영향력 증대로 바로 나타날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심사평가원이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통해 진료비의 가감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개입할 길이 생김으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를 공단과

의료단체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수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계약으로의 전환은 수가 결정 과정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도입되어 있지만, 계약제의 도입으로 수가결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발전 과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이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임은 틀림없지만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의료보호를 포함한 의료보장제도의 완전한 통합일원화의 달성

의료보험만의 통합일원화는 아직 '의료보호' 적용자를 의료보험 제도 밖에 놓아두고 있다. 최근 의료보호 적용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의료보장제도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이들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보험만의 통합일원화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를 포함한 의료보장의 완전한 통합일원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 필요
현재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외래의 경우 60-70%, 입원의 경우 50-60%에 달하고 있어 이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보호라는 의료보장제도의 1차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부담금 도입을 주요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세계은행에서조차도 본인부담금 수준을 낮추라는 권고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장애물의 하나가 제거되었지만 통합이 보험적용 확대를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통합 후 어떤 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보험적용 수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시급하다.

3)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 명시
IMF 관리 체제 편입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료보장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당연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고보조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국고지원의 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해야 한다.

4)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가 과

거 조합방식의 보험료 부과방식에 비해 형평성 면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에 보험료 부담능력과 관계가 적은 성, 연령 등이 포함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과거 통합논쟁에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이는 통합의료보험의 성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3. 의료보험통합과 4대 사회보험통합 그리고 의료제도 전반의 개혁

의료보험통합은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의료보험 통합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바로 잡는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보험통합은 전반적인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약분업, 주치의제도의 도입,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제도개혁의 주요 의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의료보험과 무관한 것이 없다. 의료보험통합을 통해 의료제도개혁을 위한 장애물의 하나를 제거하였으므로, 이제는 의료보험제도가 의료제도개혁을 강력히 지원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사이버 정보망

아동보육종합정보망(EDUCARE)

김지익 · 서울남부지회 회원

인터넷의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한국보육에 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홈페이지)를 찾는 건 하늘에 별 따기네요.

열심히 헤엄치다가 하나 발견한 곳이 아동보육종합정보망(EDUCARE)!

전용통신망(EDUCARE-NET)을 통해 전국민의 보육에 관한 질적 향상을 가져 오고, 전국어린이집 등 기타 보육기관에서는 보육의 전문화, 과학화, 21세기를 향한 선진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기치하에 현재 서울시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을 주어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우선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홍보도 가능하고 그밖에 구인, 구직정보, 한보련 소식, 여성/사회복지 소식등의 공지내용이 있습니다. 그밖의 내용중에 눈에 띈 것은 스웨덴, 독일, 중국, 뉴질랜드등의 세계여러나라 보육현장 소개와 교사를 위한 행사나 세미나 안내, 육아체험담 등이 있었고, 견학,나들이장소엔 전국의 눈썰매장 주소가 다 들어있네요(여긴 아직도 겨울?).

자료실에 가면 보육통계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프로그램, 관련 신문,방송내용, 보육정보간행물들을 볼 수 있고, 보육정책정보에는 정책 및 행정지시,통보, 법령, 사업지침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와 꽤 친한 것 같죠?). 보육 프로그램은 약간 피상적이지만 이론에서 여러 프로그램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보육시설운영정보에는 재무관리, 인사관리, 시설,설비관리, 사무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지역사회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육정보센터와 KID-MART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헤엄쳐 볼만 하죠?

찾아가시는 방법 - <http://www.educare.or.kr>

특수보육활성화를 위한 과제

본회의 주 사업목표인 '특수보육활성화'의 과제를 풀기 위한 일환으로 가능한 연속하여 특수보육에 관한 회원들의 글을 많이 실을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저없이 편집부로 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과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박은아 ·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방과후반 교사

1. 들어가며...

한동안 '열쇠를 목에 건 아이들'이란 표현이, 뉴스며 TV드라마의 주된 화제거리였던 적이 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가 끝난 뒤 자신의 손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학원에 갔다와서는 오락실 앞을 서성이며 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처럼 방치된 아동은 갖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여론화되면서 낯설게만 들려오던 '방과후 아동지도'가 점점 체계화된 보육프로그램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아동지도'란 단어보다는 민간에서 주도된 유사한 형태의 '공부방'이 먼저 정착되어져 있었던 현실속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의 역할과 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검증된 이론이 희박한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시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는 더 증폭되고 있으나, 정책적인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중 단기과제의 하나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이 제시되면서부터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제16조)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방과후 프로그램이 논의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막 시작해서 모습을 갖추어 가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그 실행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지만, 나름대로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보다 나은 방과후 보육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라본 방과후 프로그램의 몇가지 과제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2. 방과후 프로그램이란...

방과후 아동지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활동의 장소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공의적인 개념의 방과후 아동지도는 학교 정규수업 활동 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수업이외에 받고 있는 특별활동, 스포츠활동, 지역사회학교, 취미모임, 학원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김재인, 1996)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의 형태(컴퓨터반, 영어반, 미술반 등 특별활동반)가 이 공의적인 개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의적인 개념으로 방과후 아동지도를 정의하게 되면 학교 수업이 없을 때 어른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령기 아동을 허가 받은 정규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돌보아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김재인, 1996)그러나 일차적인 목적의 보호 개념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현재 진행중인 방과후 아동지도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적 정의에 의한 프로그램이 현재 어린이집 내 방과후 교실, 각복지관내 방과후 교실, 초등학교 내 방과후 교실, 민간 주도의 공부방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3.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실과 과제

1)교사대 아동수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 사업지침에는 방과후반의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을 교사 일인당 아동30명으로 지정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은 어린이집내의 영, 유아반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방과후 반에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반의 대상 연령은 법제상 12세까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은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연령 속에서도 지적 능력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는 발달단계적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모여있는 방과후반 아동 30명을 교사한명이 본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아동들의 학교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야 할 숙제가 다르고, 아동들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아동이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도 달라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아동들의 개별화 교육과 진정한 보호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수행과업과 방과후 운영의 목적(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제공,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 도모)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안산에서는 98년 9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직 여성들의 재교육을 통해 '저

소득아동생활지도사'를 각 방과후 교실에 지원해주고 있다. 두명의 교사가 아동들을 보육하게 되면서 업무의 분담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을 여유와 함께 소외되거나 문제를 지닌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조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2)아동지원

97년 방과후반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편부모 가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모습이었다. 현재 안산에서는 98년부터 어린이집 내 방과후 반 아동중 지원 대상아동에게는 영, 유아들과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 내 프로그램이나 민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정부 인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같은 상황의 아동들이 방과후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한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아동 중심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어떠한 시설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부모들의 요구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이전까지 느긋하게 아동의 자율성을 강조하던 부모들조차도 과열된 교육열에 의해 불안함을 느끼게된다. 이러한 불안심리는 방과후 교실에 아동을 맡기면서 '주입식 학습'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방과후 교실에 대하여 일반 학원에 대한 기대치로 공부만을 가르쳐주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방과후 교실은 아동에게 일차적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 주된 역할이 수행되어지면서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자발성에 의한 교육, 열린 교육, 생활습관형성 교육 등이 실행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부모들의 요구와 방과후 교실이 갖는 있는 위상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와 같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선택에 의한 '시장'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모들이 요구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본질을 바꾸어 점심제공과 학원가기전 정거장의 역할로 최소한의 보호 기능만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정말로 필요한 아동(부모와 오래 떨어져 애정결핍을 보이는 아동,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신체적, 정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을 학원에 보내어 아동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부모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마냥 '시장' 구조의 선택적 상황에만 맡겨 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전략과 함께 각 방과후 교실에서 지향하는 교육관과 부모의 교육관의 합의를 위한 끊임없는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열린교육'의 성

과물들(예 : 생활습관의 변화, 또래와의 올바른 관계형성, 주체성, 자발성의 향상, 특별활동을 통한 결과물-사물놀이, 현장학습 후 과제물 등-, 아동이 원하는 활동에서 얻어낸 성취감)을 부모들과 교류해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협력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요구와 고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4. 방과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언

1)가정, 학교와의 연계

인간은 주어진 환경과 반응하고 적응해가며 자신을 만들어간다. 주변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는 더욱더 아동이 처한 환경이 중요하다.

아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협력 이외의 연계고리가 있어야 한다.

아동이 가정과 방과후 교실 이외에 상당수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학교와 방과후 교실의 경우 상이한 체계와 인식 부족으로 연계활동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동지도를 위해서는 아동의 학교 내의 교우관계, 학습태도, 교사와의 관계 또한 파악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방과후 교실이 연계고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학교, 방과후 교실의 상호교류적 협력체계는 열린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연계된 예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방과후 교실과 아동의 담임 교사와 함께 했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98년 11월, 당시 L은 2학년으로 할머니와 동생과 함께 사는 모자가정의 아동으로 매우 산만하고 학교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방과후 반에서 2주동안 L을 관찰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는 것, 학교 숙제하는 것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학습한 흔적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L의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함을 느끼고 학교에 찾아가 L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들었다. 학교에서도 L은 수업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으며, 1교시와 4교시에는 특별 반으로 보내진다고 했다.

담임 교사에게 L의 가정 환경과 어렸을 적에 L이 부모에게 받은 정서적 피해를 설명하고, 담임교사와 역할을 합의하였다. 방과후반에서 숙제지도와 생활지도,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담임교사가 학습성취에 대한 강화를 담당하기로 했다. L의 상황에 대하여 물렸던 담임교사는 그후 다른 시각으로 L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10분이면 할 숙제를 L이 3시간 걸려서라도 하도록 옆에 앉혀 놓고 시켜 숙제만은 해보냈다. 담임교사도 매일 L의 숙제 검사를 통하여 L을 칭찬하여 행동강화를 시켰다.

3월 현재, 담임교사와 방과후 교실의 협력으로 L은 스스로 학습하고, 학교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도 집중을 하는 변화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L에게서 발견된 큰 변화는 주변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자아 존중감이 생긴 것이다.

2)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모든 보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시기 아동이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 의해 검증되어져 나온 체계적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방과후 프로그램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되어져 나온 것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이를 기본으로 하여 확대, 실행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활동을 '숙제지도'가 된다. 아동에게 부모들의 빈 공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숙제'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있어 '숙제'의 해결은 가장 큰 역할이 된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업성취지도, 놀이지도, 특별활동(과학, 미술, 음악, 현장학습, 국악, 요리, 독서지도 등)등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활동의 개발, 계획, 실행이 교사 개인의 몫이 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프로그램 속에서 교사 개인이 창조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낸다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보다 전문화되고 기능의 완속도가 필요한 활동이 요구되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이 바로 담당교사 개인의 질로만 국한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정책입안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문화된 교사 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연계정도 많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 체계로서 교육부의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장에서의 문제와 발전적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모임과 교사들이 자기 개발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보육료의 현실화와 지원

어린이집 내 방과후반 보육단가는 종일반 아동의 보육료(109,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반액(54,000원)으로 책정되어있다. 이 단가 산정의 근거는 학교 다녀온 후 반일반 보육을 한다는 이유이다.

초등학교의 급식 실시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저학년의 경우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학교가 된다. 즉, 방과후반 보육료에 아동의 식비가 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각 기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즉 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보다 과학적인 보육료 산출로 인한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산출근거에 의한 보육료의 인상 부분이 모두 부모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의 식비에 관한 부분은 학교 급식에서 교육부가 담당하듯 보건복지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식비 뿐 아니라 방과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의 다양화와 대상 확대(모든 시설의 지원 대상 방과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를 통한 차별보육의 실현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정부와 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료 현실화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선결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영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했듯이(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지원) 방과후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방과후 교사들간의 상호교류

방과후 프로그램은 복지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내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양적인 확산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개별화된 방과후 교실은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여러 곳에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서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논의하고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방과후 운영 주체들이 모임이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방과후의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내고 현장을 통한 아동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5. 마지막

너무나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 큰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는 어른들의 편한 사고로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연구되어 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발전 논의에서 항상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논의하면서 잊혀질 수도 있음을 각인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책이 입안되었다면 시행에 있어서도 보다 책임성 있게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정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질과 프로그램의 질이 직접 연관되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지닌 교사의 배출과 교사 재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지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선진국의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지고, 현장의 검증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이 적용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한국의 정서와 애정'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속에서 학계와 현장이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한국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 모형'이 속히 개발되어지기를 바란다.

영아반 교사의 경험이 주는 교훈

문유미 · 인천, 예술어린이집 교사

정확히 1년 3개월 영아반 교사로서 이렇게 전 회원이 보는 소식지에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당혹하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혹여나 몇년을 영아반을 맡았던 교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신출내기 교사의 영아반 생활 낚두리려니 그렇게 가볍게 웃으며 보아주었으면 한다.

영아반을 난생 처음하게 된 후,

‘참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편안한 생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하루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계획하여 생활해야 했던 유아반과는 다르게 조금은 느슨한 상태로 그야말로 보호와 일상생활 습관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생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몇 달, 그래! 대략 반년의 세월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다.

유아반의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내가 영아반 아이들과 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규칙을 정하고 몇번을 이야기하고 때론 심한 벌을 세우면서 선생님의 교육 패턴에 익숙해지며 가끔은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유아반 아이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멍하니 나를 대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의 권위는 일순 무너지기 쉽사이었다. 몇십번을 이야기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교사의 인내를 무던히 시험하는 아이들 앞에서 유아반의 습관대로 혼을 내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건 게임이 안되는 게임이었다. 혼을 내고 난 후 이야기를 하고 따스하게 안아주면 그걸로 자신이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애써(!)잊으려고 했던 유아반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영아반의 아기들은 나를 보면 울고 칭얼거리며 그야말로 나를 강하게 거부해 버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다른 선생님의 품으로만 자주 파고드는 아이를 보면 속상하고 또 그걸 받아주는 선생님이 야속하다 못해 바른 교사의 자세가 아니라며 그 교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나를 위안하곤 했던 적이 부지기수였다. 돌아보면 왜그리 바보 같고 구태의연 했는지 부끄러워 혼자 웃음을 흘린적이 많다. (이제와서)겨우 1년이지만, 참으로 얻은것이 많았던 생활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한다.

배운것중 기억하나를 떠올리면...영아반 생활 3개월쯤 흘렀을까? 새로 13개월 여자아이가 입소했다. 이름도 예쁜 고은혜. 낯선 생활이 처음이었으리라. 그리 많이울고 떼쓰고... 이름간은 무던히 인내하며 아이의 칭얼거림을 안아도 보고 업어도 보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달래주었다. 그러다 3일째 들어서면서... 또 그 못된 유아반의 생활습관이 어디가랴.

우는 아이 그만 울라고 큰 소리로 혼내기, 혼자울고 싶은 만큼 울라며 방에 혼자 들여보내기, 다른 선생님들이 우는 아이 안아주면 그러지 말라고 빼앗아 혼자 앉혀놓기 등, 참으로

글로 옮기기 민망한 교사로서의 나의 치부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였다. 칭얼거림이 조금 잠잠해 지려니 싶었던 나의 기대는 그야말로 기대였다. 울고 또 울고 오히려 더 어린이집을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는 은혜의 모습! 이틀간 아주조금 안정을 찾아 가려고 했던 아이를 오히려 첫등원 그날 불안함 그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번 경험으로 그 사실을 인식했으니 없는 나를 뒤로 두아가 입소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야 말하지만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교사가 무언지, 어린이집이 무언지 알수 없는건 당연한 일이었고, 엄마와 같은 편안하고 따뜻한 어른들이 있는곳, 노래배우고 장난감으로 놀고,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재워주고, 오줌 똥 제때 제때 치워주어 기분을 좋게하는 곳으로 어린이집을 인식했던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은 두렵거나 불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과,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아교사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다. 3세전에 형성되는 성격에 영아교사였던 내가 끼쳤을 영향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다. 물론 깨달은 뒤에 전과같이 생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배운것 중 기억 또하나를 떠올리면...

24개월 이상의 아이들의 담임을 맡으면서(수업시간이 오전오후 1시간씩 있었음) 수업의 많은 양을 미술활동으로 치중했다. 당연히 영아반 환경관은 아이들이 미술활동의 결과물들이 뿔나게(?)걸리게 되었다. 오히려 유아반 선생님들이 내용을 물어 볼 정도로... 수재나 천재로 만들 요량도 아니었으면서 왜그리 욕심을 내어 수업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전적으로 유아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나의 구태의연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두를 부정하진 않는다. 미술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많은 즐거움을 느꼈으리라 믿으니까(이것 또한 나의 착각인가?) 문제는 영아반 수업내용의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영아반은 특히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활동, 그야말로 감각적이고 정서를 안정화시키는 교육내용들이 주요한 학습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아반 환경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따뜻하고 행복한 환경으로 꾸며주는 것과 많은 사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물건들을 제공해주는것, 반복해서 활동하는 것, 음률활동을 다채롭게 해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한다. 영아반 1년 3개월을 마치고 나는 또 67세 유아반에 담임을 맡게 되었다. 1년만 더 영아반에서 생활한다면 위에 열거한 아쉬웠던 부분을 한걸음 한걸음 실천해보고 싶었는데 내 욕심과는 다르게 영아반을 돌아나오고 말았다. 지금도 가끔 미담이 분위기 참문으로 영아반을 훑쳐보곤 한다. ‘아 귀여운 내강아지들’ 엉덩이를 짹 내밀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슬쩍 슬쩍 그곳에 들어가 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수십번 하고서야 다시 되돌아 유아반으로 건너오곤 한다. 호시탐탐 영아반 아이들을 찾아 그곳에 들르는 나를 보고 아는 사람 왔다며 좋아라 ‘엄마엄마’ 양팔 벌려 내게로 아장걸음오는 아이들을 힘껏 안으며 ‘아! 영아반 선생님들은 정말 좋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입안에서 맴돈다.

특수교육(영아/방과후/장애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 안내

영아/장애/방과후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의 다양화, 특수교육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나마 이루어지고 있고 영아/방과후/장애아 전담시설도 생겨나고 있다. 일반교육시설에서도 영아반이나 방과후 반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극소수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한 두명의 장애유아를 같이 돌보기도 한다.

하지만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발된 특수교육프로그램도 한 두 종에 불과한데다,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일과 운영, 아동지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나 교육이 부족하고 시설과 시설, 교사와 교사들 사이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특수교육은 극히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보수교육 또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에 본회는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을 마련하였다.

이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특수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관계로 강의의 일부를 국외강사로 편재하였는데 국외강사는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에 의뢰하여 영아교육 경험이 있는 현직 방과후반 교사와 발도르프의 치유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오이리트미' 전문가, 발도르프교사를 양성하는 도르트문트사범학교 前학장님을 초청하였다.

이번 교육의 내용은 특수교육분야에 종사하는 현직 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각 과 정별로 주제를 정했으며 강연 외에도 교육당일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수집하여 공통된 질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였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 시 : 1999년 4월 29일-5월 1일까지 3일간

장 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백마당강당/대동강관악산 회의실

참가비 : 각과정별(영아/방과후/장애통합 및 행동수정) 6만원/회원 5만원-식사제공 (숙박을 원할 시 1만원 추가)

접 수 : 전화신청 후 온라인 입금 (국민은행068-21-0479-041 정희연) -선착순마감

강사진 :

국내강사: 미정

국외강사

Wolfgang Sasmannshausen 박사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前도르트문트 사범대학 학장)

Joerg-Herman Schroeder(오이리트미 전문가)

Gisela Braune (前영아교사/現발도르프학교 부설 방과후반 교사)

각과정별 교육내용

영아교육	방과후교육	장애통합및 행동수정
· 영아기의 특성 · 영아교육환경 및 일과구성 · 적응 및 신뢰감 형성 · 교사의 역할, 인성, 기질 ·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 감각교육 · 대소변가리기 · 문제행동 (공격적 행동-할퀴기, 깨물기, 꼬집기, 때쓰기 등)	· 방과후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 방과후 교육환경 및 일과구성 · 방과후 아동기의 특성과 행동이해(기질론) · 예술교육 · 사회성 교육 (사회관계의 특성) · 성교육 · 문제행동(폭력성, 분노, 복수심, 지나친 자기주장 등)	· 장애의 일반적 이해 및 교사의 역할 · 언어, 발달, 행동지체 및 지해 · 장애아 통합과 분리의 구분기준 · 교육시설과 치료시설의 연계 · 통합프로그램 · 특수한 문제행동(산만함, 소극적인 아이, 지나친 분노'적개성, 왕따)
공통강연 교육과 양육에서의 인간형/언어'동작의 의미와 관계/오이리트미 외/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매강의시간은 90~100분이며 각각 10강으로 구성, 강의주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아픈 아이에 대한 간호

민용식 · 순천향대학교 소아과교수

(그동안 어린이와 건강을 집필하신 고시환선생님이 연구차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번호부터는 순천향대학교 소아과 민용식교수님이 원고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시환선생님! 잘 다녀오십시오.)

어린이가 앓을 때는 쉽게 외로워하거나 슬퍼하며 심증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며 울고 보낸다. 이러한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데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평상시와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여 긴장감, 공포,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아의 방은 밝고 매력적으로 꾸며 주고 베개는 부드러운 것으로 사용하고 요는 편하게 해준다. 미열이 있는 어린이는 구태여 실내에만 있게 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가 원하면 가벼운 운동이나 놀이를 하도록 한다. 어린이가 수두나 홍역과 같은 전염병을 앓는다고 해도 반드시 격리시킬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전염성 질환이라도 질환의 시작과 끝까지 전염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진단 후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만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아픈 아이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준다. 또한 또래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기간동안에도 아이에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환아를 위한 영양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아플 때는 대부분 식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우 너무 식사에 대해 강압적인 것보다는 소량이라도 자주 아이에게 주도록 하며, 고형식 보다는 아이에게 유동식으로 필요한 영양분은 물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이가 설사나 구토를 동반한 질환을 앓고 있다면, 유제품이나 과일 등 몇몇 음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물을 아이에게 주는 것보다는 소화가 용이하고, 아이가 부담을 가지지 않는 음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열이 있을 때 대증요법

아이에게 열이 있을 때 경기(열성경련)를 일으키기 쉬운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열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약간의 열은 오히려 면역학적으로 좋게 반응하기 때문에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열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태어난지 한달 이하의 신생아인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대증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 환경조절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외부 환경의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열이 있을 때는 옷이나 담요를 너무 싸주지 말고,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하며 (18 C 정도) 방안의 환기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열이 있을 때 아이들은 춥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 옷을 많이 입히거나, 담요를 덮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열이 피부를 통해 발산되지 않아서 오히려 열이 더 오르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옷을 다 벗겨놓게 되면 아이가 추위로 인하여 피부가 수축하고 소름이 돋게 되어 오히려 열이 더 오를 수 있으므로 너무 덥지 않게 혈행한 옷으로 조금 선선하게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2) 냉찜질

냉찜질을 하게 되면 열이 피부를 통해 발산되므로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마에만 물수건을 얹어놓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팔, 다리, 몸통 등 가능한 몸 전체를 닦아주어야 하며, 얼음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면 아이가 덜덜 떨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수분공급

열이 있으면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소실되고, 아이가 잘 먹지 않게 되어 영양이 부족하고 탈수되기 쉬워 회복이 늦어지게 되므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으려 해도 보리차 만큼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고, 우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묽게 희석해서 먹이고, 아이가 안먹는다고 금식시키지 말고 아이가 평소 잘 먹는 것으로 조금씩 자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열제

해열제는 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하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4시간 간격으로 먹여도 좋습니다. 좌약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 해열제와 똑같은 것이므로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은 인플루엔자나 수두에 사용하면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가 열이 있을 때 부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5) 체온측정

아이들은 만져보면 어느 정도 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열이 의심되면 반드시



체온계로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항문이므로 체온계를 3-5분 동안 5cm 정도 삽입해서 측정하고, 38도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체온을 재다가 체온계가 깨져서 수은을 먹은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은 금속수는 이므로 안심해도 좋습니다.

약먹이는 방법

1. 약 먹일 때 엄마들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약을 강제로 먹이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을 먹이는 것은 힘듭니다. 약을 줄 때는 재미있고 맛있는 것을 준다는 느낌을 아이가 갖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힘들어서 안될 때까지는 아이를 달래고 맛있는 것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강제로 먹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게 만들어보세요. 우선 특별한 약이 아니라면 약에 설탕이나 꿀을 타서 달게 만들어 먹여보십시오. 그러나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약에 이런 것을 타세요.

섞는것을 보기만해도 안먹으려합니다.

2. 약을 잘먹는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3. 특정한 시럽의 향을 싫어하는 아이는 먹기 전에 물을 좀 타서 물게 하면 잘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을 좀 많이 타서 쥐도 약효에는 대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우유에 타서 우유병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한번 먹는 우유양에 섞는 것이 아니고 소량의 우유에 약을 타야합니다. 우유를 남길 경우 약을 덜 먹이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우유병을 안빨려 한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돌 지 난 아이가 우유병을 빨고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유병도 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속에 물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이스크림 속에 넣어 주면 잘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한꺼번에 먹기 힘들어 하는 아이는 10분 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먹여봅니다. 특히 약먹으면 다 토하는 아이들은 나누어 먹여보십시오.

7. 어린 아기의 경우 엄마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가락에 약을 묻혀서 빨리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은 충분히 소독해야 합니다.

8. 먹고 자주 토하는 아이는 만일 식사 시간에 상관없는 약인 경우는 식사 전에 빈속에 먹여 봅니다.

<강제로 먹이는 법>

이런 방법으로도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매번 달래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먹게 설득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1. 두 사람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한사람은 아이를 안고서 한 손으로 양팔을 휘어잡고 한 손으로 이마를 눌러서 못 움직이게하고 다른 사람은 한손으로 입을 벌리고 한손으로 숟가락에 물약과 가루약을 섞은 것을 넣습니다. 약을 넣고는 물도 조금 숟가락으로 재빠르게 주고고는 입을 다물어줍니다. 그리고 재빨리 관심이 다른데로 가도록 알려줍니다. 이것이 엄마들이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2. 어린 아이의 경우는 이불로 아이를 싸서 손발을 못 움직이게 만든 후에 안아서 머리 잡고 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숟가락 대신 스푼에 물약과 가루약을 섞어서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잇빨이 난 아이는 이런 경우에 씹어서 깨트리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리로 된 것은 곤란합니다.

4. 투약기란 것이 있는데 약을 미리 섞어서 넣은것을 서서히 흘려서 입에 넣어줍니다. 한꺼번에 입안에 넣으면 사래가 들어서 위험한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절대로 때려서 먹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약 먹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약이나 귀약을 넣는 방법>

1) 기본 주의사항
우선 안약이나 귀약병을 손으로 감싸거나

미지근한 물에 담그어 체온정도가 되게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레인지에 데우면 안됩니다.

아가의 스포이드나 약병의 떨어뜨리는 부위가 아가의 몸이나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았을 때는 병속에 넣기 전에 꼭 잘 씻어야 합니다.

여러 아이가 같은 약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귀약을 넣는법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귓구멍 중앙에 정해진 양만큼을 정확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귓구멍에 넣은 약이 속으로 충분히 들어갈 때까지 그 상태로 기다립니다.

양쪽 귀에 다 넣을 때는 조금 시간간격을 두고 넣는 편이 좋습니다.

3) 안약을 넣는 방법

우선 아가의 얼굴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눈꺼풀을 아픈 눈이 약간 아래로 가게 고개를 잡고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안약을 한두방울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힘든 어린 아이의 경우는 물혀서 코쪽 눈가에 한 두방울 떨어뜨리고 눈꺼풀을 약간씩 움직여 줍니다.

가습기 사용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기침, 가래가 많이 있을 때 공기가 건조하게 되면 기관지도 건조하게 되어 가래가 밖으로 잘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해서 방안의 습도를 올려주어 기관지내의 점막을 부드럽게 해 주면 기침, 가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코가 막히는 경우에도 방안이 건조하게 되면 코 안도



건조하게 되어 코가 더 막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방안의 습도를 올려주면 코의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가습기가 코 막힘 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열이 있을 때도 가습기를 사용해서 주위의 습도를 올려주고 방안의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해주면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도움이 됩니다. 이와같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가습기를 사용하면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외에 모세기관지염, 후두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도 사용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천식과 같이 기관지가 예민한 경우에는 찬 습기가 오히려 자극이 되어 기침이 심해지고 증상을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용하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가능한한 끓인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끓인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된 물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사용하는 물은 더운 수증기 보다는 찬 수증기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기관지가 예민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 3) 물통 및 주변기구는 최소한 이틀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합니다.
물통에는 항상 물이 담겨져 있어서 곰팡이

나 다른 균들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수증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직접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 4) 가습기의 위치는 아이의 머리부분에 놓지 않습니다.

만일 가습기를 아이의 머리 부분에서 사용하면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아이의 몸이나 옷에 직접 닿게되어 축축해지면서 체온조절이 잘 안되어 오히려 감기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5) 방안은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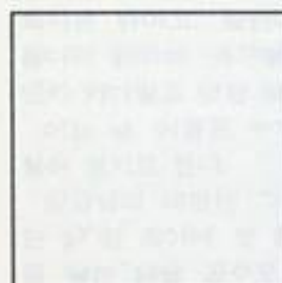
필요 이상으로 가습이 많이된 경우에는 저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안은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 6) 쓰지 않고 보관할 때는 물을 완전히 빼서 보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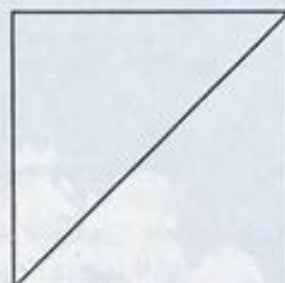
만일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곰팡이 등이 잘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칠교판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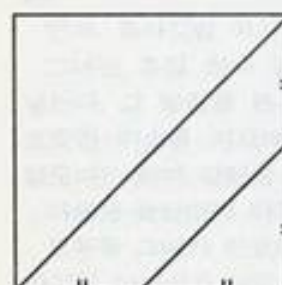
겨울연수 '전래놀이' 시간에 칠교놀이를 무척 좋아하셨지요?
많은 회원들이 칠교판 제작방법을 문의하여 궁금증을 풀고자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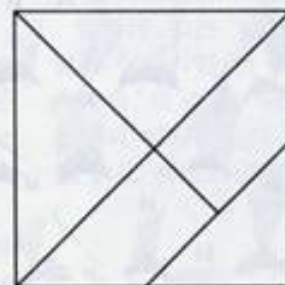
① 가로와 세로가 같게 정사각형을 만든다.
(규격은 10cm×10cm가 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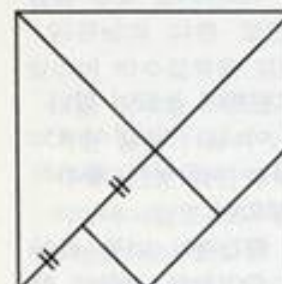
② 아래 그림과 같이 대각선을 하나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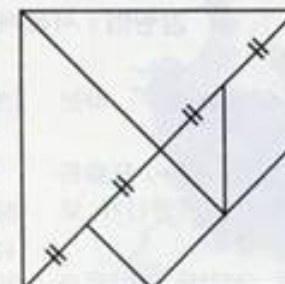
③ 대각선과 같은 방향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선분을 그린다.



④ 반대편 대각선을 아래 그림까지만 그린다.



⑤ 아래와 같이 선을 이어 정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눈다.



⑥ 아래와 같이 선을 이어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나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헬메 하이네 그림·글 / 김서정 옮김 / 시공주니어 / 7,000원



김랑의·서울지부 회원

‘뭐 좀 재미있는 그림책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서점을 찾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이라…… 요즘은 [세상에서-]로 시작하는 그림책이 유행인가 보군……’

작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닭]을 아이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읽은 나로서는 또 하나의

[세상에서-]로 시작하는 그림책에 눈길이 갔다.

후후… 이번에는 ‘달’이 아니라 ‘달걀’이네! 호기심으로 가득 찬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그림책을 읽어 보았다.

인쇄된 글자의 자간과 줄간격이 너무 좁아 읽기에 조금은 불편했고, 주인공의 그림이 작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림이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황당’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다.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세 마리의 닭이다. 닭의 이름은 ‘화사깃털 아가씨’와 ‘늘씬 다리 아가씨’ 그리고 ‘멋진벧 아가씨’이다.

이들은 늘 자신이 가장 예쁘다면서 싸우기 일쑤다.

이름 그대로 화사깃털 아가씨는 깃털이 아주 화사한 닭이고, 늘씬다리 아가씨는 요즘말로 통다리 닭이며, 멋진벧 아가씨는 우수꽁스러운 만치 커다랗고 멋진 벧을 가진 닭이다.

어느 날, 이들은 누가 가장 예쁜지 임금님께 물어 보기로 한다.

임금님의 대답은 ‘가장 아름다운 달걀을 낳는 닭’인 것이며 셋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걀을 낳는 닭을 공주로 삼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라 안의 모든 암탉들이 임금님을 따라 이 세 마리의 암탉들이 달걀 낳는 것을 구경하게 된다.

먼저, 화사깃털 아가씨!

그녀는 흠집 하나 없고 눈처럼 하얀 달걀을 낳는다. 그 달걀을 본 임금님과 모든 암탉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도다!’ 하며 감탄을 하게 된다.

다음은 늘씬다리 아가씨!

모두들 그녀가 안됐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화사깃털 아가씨가 낳은 달걀처럼 완벽한 달걀을 낳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지만 잠시후 늘씬다리 아가씨는 가뿐하게 알을 낳고 일어난다.

임금님과 다른 모든 암탉들은 입을 ‘헤~’ 벌리며 박수갈채를 보내게 된다.

그들 앞에는 타조도 부러워할 만큼 커다랗고 무거운 달걀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멋진벧 아가씨!

이번에야말로 모두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안됐다는 표정을 짓는다. 앞의 두 닭보다 더 완벽한 달걀을 낳을 수는 없을 테니……

멋진벧 아가씨는 꼬꼬덕거리며 울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달걀 낳는 방식이란 다. 드디

어 멋진벧 아가씨가 일어난다. 짜짜짠~!

멋진벧 아가씨가 낳은 달걀을 보고는 임금님을 비롯한 모든 닭들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입을 크게 벌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과연 멋진벧 아가씨는 어떤 달걀을 낳았을까?

그리고 과연 누가 임금님의 공주가 되었을지……

궁금한 분은 꼭 책을 한 번 읽어 보시길!!

그림책의 맨 마지막 장면은 임금님과 함께 세 마리의 닭이 배를 타고 강물 위를 유유히 흘러가고 있으며 하늘에는 달걀 모양의 노란 달이 덩그러니 떠있다.

[그 셋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달걀을 낳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책의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림책의 맨 앞장과 뒷장에 있는, 노란 바탕에 그려진 발자국들이다.

앞장에 있는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맨 뒷장의 그림은 한 사람의 발자국과 세 마리 닭의 발자국이 그려져 있다. 누구의 발자국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전시회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전시전을 다녀와서

- 편집부 -



아이들의 작품을 곁머

이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성인들이 작업과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가정·학교·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른들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삶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희망과 분노, 용기와 좌절 등을 느끼며 생활합니다. 사물을 보고 느낀 것, 사건을 체험하고 느낀 감정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동안 사물과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창작활동 역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과정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며 기능적인 측면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의 미술작업을 통하여 즐거움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서적인 부분의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시관에 걸려있던 글-

전시관을 들어서자 밝고 화려한 조형작품들이 시선을 압도하였다. 곧 노수산 선생님과 간단한 인사를-손님이 많은 관계로- 하고 작품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한 작품 앞에 섰을 때 "애가 작가니까 자세한 설명 들으세요. 진석아 선생님에게 잘 설명해드려" 노수산 선생님이 진석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인사를 시키신다. "이 작품은요 신



우리들이 만들어 낸 세상

제16회 한국여성대회

지택연 시절부터 우리에게 좋은 아동미술관을 교육해주신 노수산 선생님이 최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시회는 선생님의 분당 미술학원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관계로 노수산 선생님과 그리 길지 않은 인터뷰를 한 점 독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문보고 먼저 스케치를 하고요 색 모래에 풀하고 본드를 섞어서 칼로 칠한 거예요. 아이들과 공동작업한 거예요. 이걸요...." 어린 작가의 설명이 다정하다.

"선생님에게 미술을 배우며 어떤 점이 달라졌나?"

"학교에서 미술시간에 실수를 하면요. 노수산 선생님이 하나하나 고쳐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는 그림만 그렸는데요, 여기서는 만들기과 공동작품도 많이 하는 게 재미있고요, 상상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친감에 전시회에 관한 소감을 물었다.

"우리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전시회에 관한 어린 작가의 소감은 소박했다.

잠시 시간이 난 노수산 선생님과 몇 마디 나눌 기회가 왔다. 요즘 분당에서 운영하시는 학원일과 아동미술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시라며 학교강의는 나가지 않으신단다. 아동미술 책이 나오면 지택연(선생님은 아직도 지택연이라고 부르신다.)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어떻게 이런 전시회를 그것도 유명한 인사들 경인미술관에서 열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분당에서 전시회를 하면 재자람이나 학원 홍보 같아서 못하겠네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포스터 제목이나 그림 등 모두 아이들과 결정했지요. 아이들이 작가이니 만큼 안내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누구나 재미있게 미술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이지 미술활동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다란 생각과 미술작품들에서 오는 생동감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를 가지각색으로 표현한 점등이 감동적 이었다. 오랫동안 본회와 인연을 맺은 선생님의 잔치에 초대된 것이 무척 기쁘고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무한대의 우리아이들의 상상력을 어른들은 조기교육이니, 특기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내려를 펼 수 없게 해준 점이 없지 않았음을 반성하며 함께 놀고,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아이들을 상상의 틀 안에서 막혀서 놀 수 있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전시관을 나오게 되었다.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5회 한국여성대회 “평등·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편집부

제15회 한국여성대회가 지난 3월 7일 KBS홀에서 있었다.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했던 98년 한국여성대회의 그 삼엄한 경비를 생각하며 kbs 홀에 도착한 것은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여성대회의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서 대통령은 직접참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축하메세지를 보내왔다.

입구부터 준비된 회원단체들의 부스에서 각 단체들이 그간 활동했던 결과를 전시, 판매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미술전시와 페이스페인팅이 이루어지고 있어 즐거운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회원단체 기수입장에 이어,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20세기를 남성이 지배하면서 전쟁과 부패 폭력과 차별, 환경 파괴 등으로 일관되어 왔다면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작은 여성의 지도력으로 평등, 평화, 인권,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어가야한다는 대회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제1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25년간 빈민지역에서 살면서 빈민여성사회교육과 공부방운동을 통해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명순님(부스려기선교회 협동총무, 빈민여성교육선교회 원장)이 받았다.

허수경, 변창립씨의 사회로 시작된 문화공연에서는 여성권의 디딤돌 걸림돌 발표, 99여성문화제 “새로운 천년” 수상작의 공연이 있었다. 99여성문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탈북여성들로 이루어진 소모임 ‘진달래와 무궁화’의 통일기원의 시와 노래는 그녀들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숙연해지게 했다.

행사진행내내 한쪽에서는 장애우들을 위해 수화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축하공연을 위해 참석한 가수 신효범씨는 자신의 노래 ‘세상은’을 수화로 부르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본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오색풍선을 들고 영등포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여성인력육성과 고용촉진!**

호주제 폐지!

30% 여성할당제 도입! 을 외치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5회 한국여성대회

“평등·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99년 3월 7일(토) 오후 2시 KBS홀



여성권의 디딤돌

- 황혼이혼 소송제기로 여성노인의 인권문제 부각한 김창자, 이시형 할머니
- 전국 최초로 농촌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 이승호 군수(강원도 인제군)
-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정당법에 여성할당제 30% 명시를 정책화 한 김희선 위원장(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위원장)
- 여성집중 부서가 구조조정되는 것을 노동조합 단결로 막아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훈병원 특성본부
- 가정폭력방지법 정착화에 기여한 다규프로그램 sbs문성근의 다규세상 그것이 알고싶다: 폭력남편-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편 (연출 허강일, 민인식/8.12.6방영)

여성권의 걸림돌

- 결혼약속하면 성폭행도 용서될 수 있다고 판결내린 송기흥판사(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
- “정리해고 0순위=기혼여성”이라는 기업의 반여성적 공식 이행한 원철희 전 회장(농협중앙회 전회장)
- 종교인으로서 소외된 자들의 안식처 이기를 포기하고 노조탄압, 여성폭행 방조한 윤주병 원장(대전 성모병원 원장)
- 광고통해 왜곡된 여성이미지 심화시킨 “허벅지 ps콘 광고주 김영환 사장(현대전자사장)
- 시대착오적 ‘순종, 인내 여성관’ 부르는 안방극장의 무대포 엄영란(방송인)

세상읽기

지금의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때 용주삼촌을 이해할 수 없어야 한다.

주혜민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교사

아이들 낮잠시간에 용주삼촌이 왔다갔다. 첫대면인데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은 것이 여기저기 언론지상에서 보아서만은 아닐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한번도 보지 않은 용주삼촌을 잘 알고 있다. 우리집에 다니고 있던 건식의 외삼촌이라는 사실 덕분에긴 하지만 모두의 삼촌이었다. 건식이 씩씩이를 졸업하기 며칠전 용주삼촌은(구미유학생사건으로 복역중이었음)14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3·1절 특사로 나오셨다. 바쁜 일정에도 잠을 내어서 씩씩이 이모들(교사를 말한다)에게 인사하러 오셨다.

건식이 외할머니가 9시뉴스나 다른 프로에 나오시면 그 다음날은 아이들 사이에서 건식이 삼촌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그러다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왜 도둑도 아닌데 감옥에 들어갔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물곤하였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지만 답답하긴 아이들 못지 않게 늘 남아있었다. 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양심수가족들의 고달픔은 또다른 색이었다.

건식이 회할머니는 아들의 구명운동을 위해 민가협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

매주 목요일마다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목요일집회에 참석하는 날이면 젊은 사람도 합겨운 거리시위로 지친 몸을 하시고 건식이를 데리러 오셨다. 늙고 연약한 노인이 고통을 상징한단, 보라색수건을 쓰고 자식의 석방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외치는 민가협 어머니들 중에 한분이셨던 것이다. 감옥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집회와 농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신 어머니 민주화운동의 큰 역할을 하신 그 어머니들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용주삼촌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간 자식을 생각하며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신 칠순이 넘은 노모의 그리움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고통의 가지수도 가지각색이었을 것이다. 칼날같은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 한번 제대로 내쉬지 못 할때도 있었을 것이고 주위의 금지 않은 시선이 세상살이를 더 힘겹게도 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건식은 무척 명랑한 아이였다.

외삼촌을 자랑스럽게 여길줄 아는 그런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도 건식이를 부러워했고 용주삼촌을 좋아했다. 우리도 그러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경험이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삶을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경험이었다. 이제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어리어 있다. 밝고 잦은 웃음을 띄우시는 모습에서 그간의 고통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우기 작년 준법서약서 문제로 감옥생활이 길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이번 특사에 포함되어 남다른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특사는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오랜 수형생활을 해온 비전향장기수들 중 대부분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여론과 남북관계 속에 죄의 댓가를 치른 분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석방속에 만만찮은 반대 여론이 소수의 보수층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복송문제 또한 남북의 정치, 외교적 상황속에 이뤄질 것이다.

한가지 잊고 있는 것은 이번 특사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화과정에서 부육된 대다수 사람들이 풀려나지 못한채 감옥에 갇혀있다. 특별한 이유로 이뤄지는 특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진정으로 양심수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냉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들은 아직도 53년 3·8선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용주삼촌을 이해할 수 없어야 한다. 너무나 황당한 사건으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해야할 일은 분단의식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분단의식으로 조장된 냉전의식을 없애야 한다. 이제는 우리아이들이 인권이 보장된 문명국가에서 21세기를 맞게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도 씩씩이에 제집 문지방 드나들듯이 오가는 건식의 거침없는 마음이 예쁘기만하다. 커서 씩씩이 자활삼촌이 되고 싶다는 녀석의 말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 그래야겠다. 날 좋은 오후에 아이들과 점심밥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 용주삼촌과 함께 말이다.



유빈이의 육아일기를 마치며

나은미 · 경기,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이번에는 왜 연락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에 묻혀 지내던 어느날, “은미야, 육아일기 쓰기 힘들지?” “네, 그러기는 해요.” “그래, 이제 그만 써라.”

언제부터가 기다리던 말이었는데 막상 그 말을 듣고나니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처음 육아일기를 쓸 때 유빈이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였는데 2년 6개월이 지나 어느새 한달 후면 세 번째 생일을 맞게 됩니다.

글재주는 고사하고 글을 쓴다는 것조차 무서워하는데 억지로라도 유빈이의 자라는 모습을 글로 남기고픈 욕심에 한달에 한번씩 밤을 새워야하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어느때는 너무쓰기가 힘들어 설거지를 대신해준다면 유빈이 아빠에게 쓰라고 했는데 그 글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아빠와 함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기도 했지만 그 달에 쓸 주제를 생각하며 유빈이를 주의깊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빈이 아빠와 아이의 자라는 모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육아일기가 아니더라도 가끔씩 유빈이의 자라는 모습을 글로 적어 유빈이가 더 자란 어느날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유빈이 키우기가 힘들다며 남편에게 투정을 부려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유빈이네 세식구가 만들어낸 육아일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수와 희경이의 육아일기

박미라 · 서울 북부 우리어린이집 자모

나은미선생님의 사랑스런 유빈이의 육아일기를 마치며, 편집부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자모가 쓰는 육아일기가 어떨까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추진하자’라고 결정을 하여 고민 끝에 우리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민주적으로(?)부탁을 하여 이렇게 성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대되지요? 어렵게 승락해주신 박미라어머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기어코 나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야 말았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늘 마음 한 구석이 찢찢하건만 막상 아이와의 대화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벌떡 화부터 난다. 아니,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그저 회사일 때문에 온몸이 빨아놓은 수건처럼 무겁게 내려앉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닐 수 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마음이 타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작은 아이는 요즘 잘 빠진다. 공부병이라고 해야 하나? 특하면 입술을 쏙 내밀고(원래도 나왔다)15도 각도로 살짝 돌아서서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달래도 쉬이 풀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저녁6시가 좀 넘어서 만나서는 10시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벌써 몇번 째 토라진다.

처음에는 온 식구가 그 토라진 모습이 귀여워 웃고, 안아주고, 어르고 했다. 그런데 이 버릇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엔 좀체 풀어지지 않아서 꼭 한번씩 꾸닥거리를 해야만 일이 마무리되었다. 꾸닥거리란 내가 결국 화를 내고 제가 묻고 빌고를 한참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좀 심해진다. 싶으면 모른체하면 될 일이다. 빠치면 말건 모른 척하고, 아이가 뭐라고 짜증을 내도 언제 그랬냐 싶게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아직도 도 닦을 일이 까마득하다.

그러나 더 문제인 건 화를 낸다는 사실보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심지어 참회까지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대하는 나의 행동이 늘 주눅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어떤 교육학자의 강의도 들었지만 바야흐로 교육의 시대다. 더 완전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중산층 가정들이 매진하고 있다. 아이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논리력과 창의력 위주로 지성을 높이고, 여유있고 느긋하며 당당한 인성을 지닌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엄마들의 열망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못한 성격 그래서 평생 불행한 한 구석을 아이만은 버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럴수록 좌절감과 자기 학대만 늘어갈 뿐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 급한 성격, 분노 그런게 정말 문제야, 고쳐야 해’ 할수록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단지 감추어질 뿐이다. 가려졌던 상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결국 폭발한다. 그리고 다시 후회...

애초에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자 했던가. 첫째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 계획했던 목적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점에 뱅뱅히 쫓힌 육아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며,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요즘 세상에 위선적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 안돼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가 무슨 행동을 시도하든 되도록이면 하도록 하라, 일관되게 하라, 아이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라, 왜 안되는지 늘 설명하라, 아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라....

도대체 모든 주문이 엄마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이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태도란 걸, 아니면 운 좋게 훌륭한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태도란 걸 그런 육아서를 쓴 학자들은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랐는가. 우리는 분노와 고통과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산 엄마들의 딸이다. 게다가 이기심과 경쟁심리로 뿔뿔 뿔쳐져 있었던 부모세대의 윤리의식을 지켜본 사람들이며, 일관 되지 못한 교육을 일관되게 받은 사람들이다.



육아일기

우리는 남자들만큼 교육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발휘해 보지 못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있더라도 육아와 살림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들이다. 결혼이라는 것,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고민 한번 진지하게 해본 적 없이 성적 울리기에만 급급해 하다가 덜컥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결혼을 하고 나면 온통 자신을 죽여야 할 일들뿐이다. 남편 위주로, 시부모 입맛에 맞게, 아이를 위해 나의 모든 문제는 뒤로 미뤄진다.

나도 같잖아. 내 성격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내가 평생 드러내고 치유해도 제대로 고쳐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럴 여유도 없이 '완벽한 육아'라는 시대풍조에 휩쓸려 억압되고, 은폐되기에 급급하니 정말 답답하다. 아니, 문제를 억압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야 얼마든지 참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 자신의 한계와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육아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뼈아픈 진리를 아이를 키우면서 뼈아프게 인식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나를 치유하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중요한 시기를 다 지나쳐 죽을 때야 고쳐질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는 육아의 짐을 온통 '문제 있는' 여자들에게 맡겨놓고 어서 빨리 잘 키우라고 야단이다.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들 일이 엄마의 에너지를 온통 다 뺏아가서 아이를 느긋하게 키울 어떤 힘도 없다.

그래, 나와 내 교육적 태도의 한계를 인정하자. 아이를 (슬프지만) 완벽하게 키울 수는 없다. 그저 이종진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해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하자. 그 두 가지만이라도 성공하자. 그러나 그렇게 수정된 내목표는 주위의 시선에 의해 늘 좌절당하고 만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주문, 네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질문, 그리고 외부의 수없는 평가, 평가들... 불행하게도 난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소신 없는 엄마인 것이다.

나는 요즘 내가 애초에 세운 교육목표가 옳은지조차 모르겠다. 아이들이 뜻밖의 행동을 하고, 엄마의 교육방식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서는 내 쥐꼬리 같은 자신감은 일시에 와르르 무너진다. 내게 요즘 필요한 것 완벽한 교육방식의 제공이나, 채찍질 같은 게 아니다. 나는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 그래야 좀더 아이들에게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격려하는 엄마들의 모임' 같은 거나 만들어 볼까나.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주감 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 열라면?

민들레반에서 여러 가지 탈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열기구'를 보고

토끼선생님 : 이 열기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 아는 친구는?

(대부분 말이 없는 가운데)

준형이(6세) : 그건요, 밑에서 사람들이 열라면을 꼭 집어 던지면요 불이 확 붙어서 열기구가 쑥 올라가요.

선생님 : ???!

(TV 광고를 참고 하세요)

☞ 나도 일해요!

어린이집에서 누리(6세)가 아빠 자전거를 타고 엄마랑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 오늘 컴퓨터 작업하는데 잘 안돼서 '불록' 지정하다가 시간만 뺏겼다.

누리 : 나는 '블록'으로 로켓, 제트기, 비행기 다 만드는데...

엄마, 아빠 : ???

(주: 블록이란, 컴퓨터상의 편집기능이 적용될 범위를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F3/F4키 사용)

☞ 엄마 갖다드리세요.

채송화반 재훈이(3세)가 언어전달노트를 처음 받던날!

재훈이 : 엄마 보여줘야지!

(하며 합박 웃음)

재훈이의 언어전달노트를 보고

엄마 : 재훈아, 선생님께서 언어전달장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재훈이 : 언어전달장이다!

엄마 :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재훈이 : 엄마 갖다 드리세요.

엄마 : ???!

☞ 우리 것이 좋아요.

진달래반(7세) 아이들끼리 꼬꼬마 텔레토비에 관해 얘기하다가 누가 더 좋은지를 서로 말하던중

현태 : 나는 나나가 좋은데...

지혜 : 나는 뽀가 더 좋다!!

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소연이 : 나는 보라돌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들 : 왜??

소연이 : 보라돌이만 우리나라 이름을 가졌으니까!

아이들 : (모두가 수긍하는 모습)

옆에 앉은 선생님 : ???

☞ 가위하고 보자기는 누가 이길까?

채송화반에서 선생님과 주먹·가위·보자기를 하다가

코끼리선생님 : 가위하고 보자기는 누가 이기~게요?

예술이 : 가위는 보자기를 짹짹 잘라요

인경이 : 쌤쌤! 나는 보자기로 가위 싸고 있어요

코끼리선생님 : !!!!

☞ 임금님의 눈물이예요.

진달래반(7세)에서 졸업여행(경남의령·산청지역 역사기행)을 가서 가야의 마지막왕 구형왕릉에서

가이드선생님 : 원래 가야는 다른곳인데 왜 여기에 무덤이 생겼나면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 보기가 미안해서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한옥집 처마 끝에서 눈이 녹아 떨어지는 것을 보며

혜민이 : 구형왕의 눈물 같아요

소라선생님 : 왜 그런 것 같은데?

혜민이 : 백성들이 보고 싶어서요!

소라선생님 : ???!

주게스토페디를 통한 어린이 음악감상교육

박성순 · 주게스토페디 음악연구원장, '음의 라비란트' 저자

1. 어린이에게 미치는 음악의 영향

자연의 소리와는 동떨어진 산업사회의 대도시인 사회에서 우리의 어린이 음악은 색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기존의 마스크에 어린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될 때 또 직접적인 교육, 우리의 마음과 몸, 숨결이 그대로 전해지는 음악교육이 아닌 간접적인 매체만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어린이들은 자신의 음악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그보다 이 어지럽고 혼돈상태의 자연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고만 할지도 모른다. 외부와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가장 올바른 음악교육은 무엇일까?

자신의 노래를 찾도록 도와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올바른 자세, 호흡이 건강한 모과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시켜 주며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스런 갈망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어릴 때 들리고 자라난 노래들이 또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부르던 노래들이 어린이 일생동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때 외로울 때 그들의 힘이 되어 준다. 그들 자신만의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도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 받쳐 줄 수 있게 된다.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었나?

아주 어려서부터였던 것 같다. 어릴때 차를 타고 가며 친구들과 함께 설새없이 부르

던 노래들을 기억한다. 그 때 불렀던 노래들은 자연에 관한 흥겹고 발랄한 노래들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울적할 때 혼자 물레 마름에 간직하던 노래들도 생각한다. 설새없이 웃모를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니던 기억도 새롭다.

음악이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해보도록하자.

1) 긴장을 풀어주고 감정을 고르게 하여 준다.

음악은 긴장을 풀어주고 또 긴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굳어져 있는 근육과 내부기관의 긴장을 점차적으로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천천히 부드럽게 이어지는 선율의 음악은 고르지 않은 어린이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고 불안정한 어린이나 쉽게 흥분하는 어린이들을 노래와 연주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고르게 되도록 도와준다.

2) 표현하려는 욕구를 샘솟게 한다.

의기소침한 어린이나 매사에 의욕이 없는 어린이, 소극적인 어린이들을 음악은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준다. 음악을 들으며 어린이들은 자기나름대로 항상 다르게 움직이곤 한다. 감정표현에 서툴거나 겁이 많은 어린이, 또 수줍음을 지나치게 타는 어린이들도 단순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음악에 맞추어 걸거나 뛰어보는 등 조금씩 자신의 몸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감정이 잘 나타나는 음악에 맞추어 그들의 느낌을 소박하게 표현하는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3) 느낌을 일깨워준다.

개인적으로 음악은 어린이들의 기분과 감정을 일깨워준다. 어린이들의 내부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욕구를, 뒤물려져 있는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게 하여준다. 음악의 흐름을 선이나 색을 통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동작으로 표현하거나 음악적 상상력을 통하여 자신만의 세계가 아닌 다른 이와 음악세계를 구축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4) 감정의 정화를 도와준다.

음악은 어린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엄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요소를 지니고 있는 특정한 리듬이나 음색은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5) 사회성을 길러준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나 연주, 또는 음악감상을 통하여 음악은 대화를 가능케한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와 그를, 또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듣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게 된다.

6) 삶과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여준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자살이 늘고 있다. 삶에서 의욕을 잃게 되었을 때 의미를 상실하였을때 음악은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하여줄 수도 있다. 창조력은 그들에게 살아가야만 하는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다른 이들과의 연대감도 찾을 수 있게 하여준다.

7) 창조자의 무한한 존재를 깨닫게 되고 자연과의 일치, 다른 이들과의 일치를 꿈꾸게 된다.

2. 음악의 사회적 기능

음악의 사회적 역할은 음식에 있어서 소금과도 같다. 어디에나 숨겨져 있고 적절해야 하고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음악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사회분위기는 다시금 음악을 만들어 낸다. 환경을 돋보이게도 하고 정화시킬 수도 있다.

음악교육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음악교육가로 우리의 사회현실은 무시한 채 언제까지나 서양음악만을 고집하고 그것도 한 시대의 음악만을 고집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어린이들 눈 앞에

보여준다면 이 같은 음악교육가는 '철부지' 음악가라 할 수 있겠다. '철부지' 음악가가 아닌 이 사회에 알맞은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다운' 음악가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여주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바른 소리를 치우침없이 올바르게 전하여 주어야 한다. 마스크의 힘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통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마스크는 음악을 통하여 모든 이를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네트로 연결시켜주어 만족감을 주고 매달리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있다. 즉 속하여 있다는 소속감이 어느 한 순간에 커다란 상실감, 소외감으로 빠져들게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신을 밝히지 않아도 쉽게 속할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다른 이들과의 연대감도 적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음악은 어떠한가?

도처에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듯, 민감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어른들의 횡포는 곳곳에 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심지어는 모범택시를 타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가까운 음악은 그치지 않고 음악뿐이라, 무선전화의 공해는 더 말할 것 없다. 허 짧은 소리로 "할머니, 아퍼?호~"하면서 우리를 저절로 미소짓게 만드는 아가가 한없이 귀엽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그 광고를 찍느라 몇시간 동안이나 전자파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모든 것을 당연시하여 서서히 우리 생활안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어른들의 거치르고 큰 목소리속에서 여린 어린이들의 음성은 가려 들리지 않고 목을 쓰고 악을 써도 누구하나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어른들 위주의 우리사회는 무심해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소리없는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병폐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으리라.

교사와 부모를 위한 어린이음악감상지도 (주게스토페디 음악교수법을 통하여)

태교음악으로 시작하여 노래방교육으로 한국의 음악감상교육은 지나친 관심과 방관으로 양극을 달리며 어린이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야 하는 음악으로의 길을 미로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곡명과 작곡가명만을 암기하도록 또 서양음악만을 강요하는 기존의 음악감상교육과 달리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 보게 된다. 음악과 연결된 역사와 신화와 종교 등 이야기와 그림, 춤을 스스로 듣고 보고 상상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통합적 예능지도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맑고 아름다운 영혼의 음악은 어린이에게 무한한 잠재력, 상상력과 표현력을 불러 일으킨다. 어린이음악감상 지도는 부모나 교사, 특히 자신의 내면의 음악을 찾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를 보살피는 부모나 교사의 목소리, 관심, 분위기, 또 그들이 즐겨듣는 음악이며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의 음악성이 달라질 수 있다.

주게스토페디(암시적)음악교수법은 동, 서양의 음악을 고루 신화, 벽화에 담긴 이야기 등 고루 맛보게 한다.

우리 모두 남몰래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음악보자기를 풀기전에 어떤 음악이 율릴까를 상상하고 마음의 귀로 듣게하는 길은 창조로의 길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음악의 신비로운

힘을 강조하고 있다. 로르케우스이 리라연주는 죽음의 신 하데스로 하여금 '무쇠로 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뱀에 물려 죽었던 그이 아내 유리디체를 지하세계에서 데려오게 한다.

고대, 중세의 음악부터 현대 음악을 들으며 우리 마음의 변화와 느낌을 명상을 통하여 시, 한지, 흙으로 빚기, 가면, 인형, Hot Seat, 춤, Psychodrama, Creative Drama 등으로 표현하며 주게스토페디의 이론과 실재를 익히게 된다.

교육장소: 서강대 평생교육원(K관 지하)

교육시간: 4월 6일~7월 20일

(매주 화 오전 10:00~12:50)

교육내용:

Suggestopedy
Gestalt Therapie: Hot Seat
Psychodrama
Creative Drama
Malen
Schreiben
Tanz
Singen
Musizieren
어린이와 음악

수강료: 159,000원

(신규등록시 입학금 3,000원 추가)

연락처: 705-8218/8718

아이들과 선생님이 만들어 낸 TV안보기운동

한미어린이집

서울 북부 한미어린이집에서 아쉽게 TV안보기운동을 벌이고 그에 대한 자료집을 편찬하였습니다. 'TV와 아이들' 분명 평행선이 되길 원하지만 현실은 심각하리만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작은 실천운동이 있어 그 성과를 회원여러분과 나누고자 자료집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1. 자료집 발간목적

TV 안보기운동의 목적은 TV를 비난하거나 TV의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모나 교사,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동안 TV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 TV시청을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 전원의 자발적인 동의이다. 아무리 많은 교사의 준비가 있었다 할지라도 참가 아동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즐겁고 신나는 경험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안이 앞선다. 이 운동에 공감하고 실제로 이 운동을 실시해 보고자 하는 교사에게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진행되었던 TV안보기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는 한미어린이집에서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던 TV안보기 운동에 대한 운동의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내용까지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교사가 아이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부모님들과의 협력작업

(1) 부모회 초대장과 주간 TV시청표 발송

TV안보기 운동을 알리는 4쪽 분량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 활동의 목적을 알리고 각 가정에서 어느 정도 TV를 시청하고 있는지 파

악하고자 하였다. (별첨자료1참조)

이 안내문을 통해 사전에 자녀들과 TV안보기 운동을 시도해 본 가정도 있었고, 부모회 전에 이 활동에 대해 문의하는 가정도 많이 생겼다.

TV시청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린이프로그램 외에 아버지들은 뉴스시청, 어머니들은 드라마 1편 정도의 시청으로 TV시청이 심각하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어린이용 VTR을 장시간 시청하도록 두는 경우가 있었고 부모님들은 문제로 생각하지만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어린 연령의 경우, 4세반)

(2) 부모회 자료발송

부모회 참가를 권유하고 자료를 미리 발송함으로써 관심있는 부모님들의 사전교육을 위하여 부모회 하루 전에 자료를 발송하였다. (별첨자료2참조)

(3) 부모회(23명중 20명 참석)

1) 1부-TV안보기운동의 목적에 대하여

① TV안보기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TV내용 바로보기와 TV의 적절한 활용

가. 최근 TV내용의 흐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정성과 폭력성이다. 왜곡된 성 정제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뉴스조차 보기 두려운 폭력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미국의 언론에서는 8세 이하 어린이는 뉴스를 시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보도 참조)

나. 과장된 광고의 영향으로 그릇된 소비 성향을 갖게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일본 수입 만화의 경우 캐릭터 상품이 함께 유입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심각하다.

다.어린이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오후 청소시간이다.(오후4시20분부터 30분정도) 이 운동을 준비하면서 교사들 자신도 특별한 고민 없이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는 대체물로 TV를 택한 것이라는 점에 다시 생각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본다면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상황일때, TV는 아이 돌보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바쁜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 경험한 것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는 것을 감안할때, 단순반복의 리듬으로 구성된 에바주는 비디오 등의 등장은 아이들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TV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고 TV는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생활의 여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② 본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설명

1. TV안보기운동을 시작하며 이렇게 부모회를 개최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자녀들의 활동을 적려해주시라는 것이다.

2. 11월1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40여분간의 활동을 진행하여 TV안보기운동에 대해 이야기나누기와 작업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용을 심화시켜 왔다.

3. TV안보기운동을 하는 동안의 대체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나누기를 하였고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TV를 시청하였던 시간에 선생님을 도와 청소하기, 우유팩 활용품 만들기 등 날짜별 활동을 정하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TV를 보지 않는 동안 볼 수 있는 책을 어린이집에서 빌려가기로 하였다.

③ 자녀와 함께 할 작업

1. TV안보기 운동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해 오기

2. 서약서에 찍을 도장 만들어 오기(아채도장) (아채도장은 아이들이 결정한 것으로 자신의 이름 또는 새기고 싶은 모양으로 하였고 부모님들과 함께 작업하기로 하였다.)

3. 2부-조별활동(연령을 혼합하여 나누었다)

① 1조 모임(진행:다정샘반 교사)

자료집에 나온 'TV안보기운동'에 대한 취지와 다른 나라의 사례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부모님께서 작성해주신 'TV시청표'를

보면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대와 시청시간, 시청 프로그램등에 대해 어머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과 시간에 대해 알려 드리고 TV안보기 기간동안의 대체활동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은 저녁시간에 어머님들이 보시는 일일 연속극이나 뉴스등이어서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TV를 꺼놓고 다른 놀이감을 제공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등을 시도한다면 아이들이 TV안보기에 대한 어려움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이야기 해주셨다.

② 2조모임(진행:슬기샘반교사)-TV시청 실태와 TV안보기운동기간중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관련된 토론

대다수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린이프로 프로그램만을 시청하고 있었고 주말의 경우 TV 시청시간과 함께 비디오의 시청시간도 급격히 늘어났다. TV안보기운동 기간중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아이들보다는 부모님 특히 할머니와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2세반 아이들의 경우 대화로서 납득시키기 어려운 문제라 TV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병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TV안보기운동 일기장' 쓰고 발표하기

1) 일기장의 구성(별첨자료3참조)

① 날짜: 1990년 00월 00일 날씨

② 오늘 한 일: TV안보기 운동이 진행되는 일주일동안 어린이집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떤일을 하고 지냈는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아동은 그림의 내용을 글로 표현한다.

③ 부모님 생각: 부모님께서 아동이 집에서 한일, 아동이 그린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과 소감을 기록한다.

④ 빌린책: 아동이 그날 어린이집에서 빌린 책의 제목을 기록한다.

2) 어린이집에서의 일기장발표

기록한 일기장을 어린이집에 가져와서 점심식사를 마친후 일기장을 소개하고 저녁시간을 가족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의 생활을 격려해 주었다.

3) 일기장 기록의 참여상황

집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고 인상적인 내용 한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도서대출에 흥미를 갖게된 아동들은 주로 대출한 책을 읽고난 후의 내용이나 느낌을 일기장의 내용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아동은 어린이집에서의 발표시간을 TV안보기 운동이 진행되는 일주일동안 상당히 기대되고 흥미로운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활동기간부터 잘 참여했던 아동들은 일기장기록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기장의 부모님 생각란에 대한 부모님 참여는 몇몇 어머님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세아동의 경우 그림과 글씨 모두를 부모님이 작성한 경우와 그림만을 아동이 그린 경우등 부모님에게 의존한 활동이 대부분이었으나 발표시간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은 상당히 높았다. 또한 이야기나누기 등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TV안보기 운동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3. TV안보기운동 평가

(1) 부모님들의 평가

1) 방법-설문지 배포, 17가정에서 수거되었다.(별첨자료참조)

2) 내용

- 16가정이 TV이용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변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보게되었다. 습관적으로 TV를 켜는 버릇이 없어졌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15가정이 가족 전체가 TV안보기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가정이 전혀 TV를 보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가정의 가족은 주로 할머니, 아버지였으며 TV를 시청한 가정의 경우도 평소보다는 시청시간이 줄었다.

- 13가정에서 자녀의 TV보는 시간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었고 주로 코미디,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과 폭력적인 장면을 제한하고 있었다.

- TV안보기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동안의 무분별한 시청습관에 대해 반성할수 있는 시간이었다. TV가 아닌 다른 매개물을 통해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할수 있었다. TV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시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아직 아이들이 TV에 길들여 지지 않은 상태라 이른감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2) 교사들의 평가

- 일주일간의 사전활동의 결과 TV안보기가 강제나 당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운 활동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 사전에 발송된 소개지와 TV시청표, 부모회자료등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부모들의 참여로 TV안보기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수 있었다.

- 4세반의 경우 담임교사가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연령에 대한 배려가 되지 못하였으나 일기장 발표,도서대출등 기대이상의 반응들이 있었다. 따라서 준비활동기간에도 이야기나누기 위주가 아닌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 종결행사(상장,사탕목걸이,파티)를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 어린이집에서의 TV시청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였다.

<정해진 약속>

*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어린이프로그램을 시청하되 원하는 아이들만 시청하고 자유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멀티미디어교육 프로그램(CD-i)은 자유놀이시 하나의 활동영역으로 제시하여 아이들의 선택하에 진행함으로 사용시간과 내용을 스스로 조절할수 있도록 한다.

TV안보기운동을 마치며

지난 1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TV안보기운동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황리에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작성해 주신 평가 설문지와 어린이집에서의 평가들을 토대로 TV안보기운동에 관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운동은 TV 자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TV시청으로 제한되었던 가족들간의 상호작용을 확대시키며, TV시청을 자율적으로 조절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거된 설문지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1~2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의 참여하에 TV를 전혀 보지 않고 본 운동이 진행되었고, 현재 평균 TV시청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본 운동이 가져다준 변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은, 부모님들이 TV시청을 자제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TV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하던 놀이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첫째, 가족들간에 함께 할수 있는 일이 많아서 좋았다 둘째, 아직은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의 아이들 지도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셋째, TV가 없어도 별로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등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처음 목표와 근접한 평가가 나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본문동 이전에 진행된 사전 활동(예를 들어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활발한 토론들,뱃지제작등)이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기장 발표와 도서대여도 본문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폐막제 잔치에서 수여된 상장과 상품도 아이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는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집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본문동을 마친 이후 TV시청에 관한 몇가지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TV시청시간은 30분으로 교사 모니터 결과 선별된 프로그램인 교육방송의 『딩동댕유치원』에 한하여 시청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선택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비디오의 경우는 교육주제와 관련하여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경우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CD-I(멀티학습기기)의 경우는 대기표(Waiting List)를 만들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조절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후 시간에 적용하고 차차로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아 갈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여 TV와 비디오, 앞으로의 컴퓨터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수 있도록 한다면 TV,비디오,컴퓨터가 좋은 시청각 교재로, 간접경험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
년 12월 11일
한미은행노동조합 부설
한미어린이집

자 료 집

글 실는 순서

- 1.자료집 발간 목적-----2
- 2.TV안보기운동 일정 소개-----2
- 3.아이들과 벌인 준비활동
 - (1)이야기나누기-TV안보기운동을 하는 이유
 - (2)이야기나누기-서약서는 무엇일까요
 - TV는 어떻게 할까요
 - (3)이야기나누기-대체활동의 계획
 - (4)일기장꾸미기와 뱃지도안
 - (5)작업-뱃지만들기
 - (6)이야기나누기-잔치계획 세우기
- 4.부모님들과의 협력작업-----8
- 5.본활동 소개-----10
 - (1)TV안보기운동 개막식
 - (2)TV안보기운동 일기장 쓰고 발표하기
 - (3)도서대출
 - (4)어린이집에서의 대체활동
- 6.축하잔치-----15
- 7.TV안보기운동 평가

별 첨

- (자료1) 부모회 초청장
(자료2) 부모회 자료
(자료3) TV안보기운동 일기장
(자료4) TV안보기운동 평가 설문지
(자료5) TV안보기운동을 마치며

자료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본회와 한미 어린이집(952-3726)으로 연락하십시오. 판매가는 본회회원 1,000원(우편발송시 1,500원), 그 외는 2,000원(우편발송시 2,500원)입니다.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제3차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스케치



지난 여름, 여름연수를 권역별로 진행하며 "속박 안하니 너무 좋다, 가까운 곳에서 하니 좋네요... 그런데 좀 서운하다" 말꼬리를 흐리며 들려오던 이야기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모든 회원들 얼굴도 봐야하고, 밤새 열띤 토론과 여흥도 있어야 하는데 공부만 하고 돌아가니 남는 것은 있는데 뭔가 하나가 되지 않은 듯한 그래서 서운한 감이 모두에게 있었나보다. "겨울총회 때 보면 되지 총회 때 모두 와야해요" 그렇게 겨울을 기다렸다.

너무도 살기에 팍팍했던 98년 한해를 우리는 곳 곳이 버티며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다.

2월 6일 해질 무렵 송실대 백미당으로 찾은 회원들은 점수와 함께 제3차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개막식을 시작으로 1박2일의 여정에 들어갔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현장교육 워크숍을 하기 위해 준비된 장소로 이동을 하였다. 신입 교사를 위해 계획한 「유아미술의 이론과 실제」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는 느낌은 떨칠 수 없었던 교사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인천지부의 미술소모임에서 기획하였다. 몇 년 동안 꾸준히 미술공부를 하신 이연순 선생님이 워크숍 진행을 맡아 주셨다. 몇 년간 꾸준히 인기 있던 그림책 강의의 맥을 잇는 「재미있는 옛이야기」! 서울북부지회 옛이야기공부모임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자료집까지 내는 성과가 있었다. 바깥놀이(나들이)의 지평을 넓힌 「박물관 활용교육」, 지난해 한국보육교사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한 강좌를 통해 박물관 활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확인되어 기획하게 되었고, 연구소의 이해영 연구원의 강의와 2달 동안 11차례 박물관 현장교육을 진행한 수원지회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4차례 연재하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던 「현장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져 「교사가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숙 선생님이 진행하였다. 회원들은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로 참석하여 열심히 듣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작업하였다.

현장교육 워크숍은 예상대로 제시간에 마치질 못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공동체놀이가 시작되었다. 지부·지회별 인사가 있었고, 이번 겨울연수는 공동체놀이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완벽한 준비물과 기획력을 자랑하는 진행자의 설명과 함께 모두가 함께 전래놀이에 들어갔다. 아이들과 전래놀이를 진행하는 부담을 벗어나 내가 즐기는 전래놀이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꼭 아이들 같아 보였고,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보고 땀을 흘렸다. 예상대로 보릿대 인형 만들기가 인기가 좋았고, 재미없을 것 같았던 딱지치기 율놀이도 신나고 칠교 놀이에서 자신의 머리를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난도의 실뜨기는 44번의 완성도에 도전해 보았지만 모두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대부분 15번까지가 고비였는데 수원의 이모양은 3번까지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피로워하기도 하였다. "10번 이상 차면 맥주 한 병"의 상품이 달려있던 제기차기. 여자는 제기차기에 약하다! 천만의 말씀 3명이 맥주를 얻는 행운을 안았다. 모두가 돌아가며 11가지의 전래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마음속으로는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꼭 해봐야지, 이걸 아이들에 맞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 아이들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는 우리 회원들은 천상 보육교사이다. 12시가 넘어 밤의 간식을 안고 숙소로 돌아가 그 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하느라 밤이 새는 지도 모른 채 그렇게 새벽은 오고 있었다. 늘 다음날 아침 프로그램이 고비인 관계로 모두가 졸린 눈 계속쳐려 뜨고 아침밥을 먹는 등 마는 등 백마담으로 다시 모여 초청강연이 시작되었다. IMF 1년, 사회복지 개혁 평가와 과제)주제 하에 백종만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개혁과제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립,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사회복지 6대 개혁 과제로 불완전 고용층 예로의 사회보험 확대, 대량실업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의 정비, 의료문제에 대한 안전망구축,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효율적 행정체계의 구축, 사회복지제도 운영에의 민주성 확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MF체제하에서의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강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제3차 정기총회에 앞서 중앙, 인천, 광주, 부산지부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실직가정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 최순옥 사무국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고 곧바로 총회에 들어갔다. 예정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회원의 적극성을 부탁하신 정희연 회장님의 사회로 민중의례, 신입회원 인준 및 회원, 감사보고, 토의안건,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의 백미(?)인 모범회원 시상! "현장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로 정말로 대안을 제시하며 회원들에게 고민의 족을 넘기는데 기여한 김연숙 선생님과, 국악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그 내용을 자료집화 하여 연구하는 교사의 상을 내온 부산의 최정임 선생님에게 연구하는 교사상이 돌아갔다. 작년에 본회의 숙원사업이던 서울지부가 발족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신입지회의 모델이 된 서울북부지회와, 작년 교육사업의 주목표였던 현장연구강화사업을 받아안아 현장교사중심으로 관찰소모임을 구성하여 실천하는 교사상을 보인 부산 관찰소모임에 실천하는 교사상이 돌아갔다. 마지막 발전하는 교사상에는 빛고를 광주지부에 돌아가는 영광을 안았다. 광주지부는 작년한해 회비 납부율과 이사회 참석율이 좋았고, 조직사업으로 목포지회를 건설키 위한 조직화대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권역별 여름연수 및 실직가정자녀 겨울나기사업 등을 잘해 내었기에 수상을 하였다. "어차피 지부상은 돌아가며 타는 것이제"하며 겸손해하면서도 상은 역시 좋은 것이라며 광주지부회원들은 함박웃음을 켰다.

이것으로 제3차 정기총회를 마쳤고 폐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막을 내렸다.

총회와 연수를 위해 준비하신 회장님이하 사무국원들 모두 수고하였고, 준비위원들 노고와 당일 일손 딸릴 것을 대비해 접수 등 온갖 일을 해준 연구소 소장님 이하 원구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년 총회 때 투표권도 없으니 가야겠다고 서운해 한 명예회원에게 '평생회원-정회원과 권리와 의무 동일'이라는 바뀐 체계가 선물이라면 선물로 생각되며, 매년 총회 때면 꼭 참석하여 후배에게 힘을 주는 양은희, 이은애, 박금희, 박상희 평생회원과 멀리서 그리워 그리워 오신 이경희 평생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 전한다. 또한 새로운 출발-대안학교 부임-에 앞서 후배들을 만나고파 오신 최현숙 전회장님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99년 한해를 짊어질 새 임원(지부·지회장)의 활약을 기대하며 99년 힘찬 한해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총회와 연수로 기억되길 바라며 회원모두에게 감사와 화이팅을 전한다.

보육계 동향

한국인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 1999년 4월 17일 오후 1시~6시
주제 : 아동의 생활 세계에 관한 질적 연구
장소 : 영남대학교 국제관 3층
문의 : 053-810-2892

원아동미술교육연구소 회원모집

지원자격 :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
교육내용 : 이론강의-아동미술교육이론, 창의성 개발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조형의 요소 및 원리, 통합적 교육영역에서의 아동미술 커리큘럼
실기강의-그리기, 색채, 관화, 조소, 복합 꾸미기 등 5개 교육활동, 종이접기 및 종이조형 지도등
문의처 : 585-9110, 586-8295

'함께 만드는 좋은 어린이집' 아이디어 공모 신청 안내

공모자격 :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모부문 : 부문1-영아반 교구 및 환경구성
부문2-영아를 위한 영역별 프로그램
부문3-기타
상금 : 대상 200만원(1명), 최우수상 100만원(2명), 우수상 50만원(3명), 장려상 30만원(9명)
신청서 교부처 :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터 자료실, 전국삼성어린이집

접수 : 1999년 6월 30일(수)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 빌딩 16층, 2259-7874

특수교육(영아/방과후/장애통합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일시 : 1999년 4월 29일~5월 1일까지 3일간
장소 : 송실대학교 사회봉사관 백마담강당/대동강 관악산 회의실
참가비 : 각과정별(영아/방과후/장애통합 및 행동수정) 6만원/회원 5만원-식사제공 (숙박을 원할 시 1만원 추가)
접수 : 접화신청 후 온라인 입금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신착순마감
국내강사 : 미정
국외강사 :

Wolfgang Sassmannshausen 박사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前도르트문트 사범대학 학장)
Joerg-Herman Schroeder
(오이리트미 전문가)
Gisela Braune
(前영아교사/現발도르프학교 부설 방과후반 교사)

* 매강의시간은 90~100분이며 각각 10강으로 구성, 강의주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소식과 소식

1. 한국보육교사회 제3차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지난 2월 6일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가 1박2일간 있었습니다. 전국의 회원이

모여 오랜만에 밤새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원여러분 2000년 새해에 다시 만나요.

소식과 소식

2 제15회 한국여성대회

3월 7일 평등·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란 구호아래 제1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과 씩씩이어린이집 선생님들, 멀리 광주의 김영금님, 수원의 이기원님, 부천의 동그라미놀이방의 임미란님 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최선희선배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연선생님은 한국보육교사회 깃발을 높이 들고 기수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북부지회 : *8회에 걸친 국악강좌를 마치고 3월 19일에는 바깥놀이토론회를 열고 좋은 장소소개 자료집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색종이 접기강좌가 진행중에 있고 '옛이야기 공부모임' 2기가 3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남부지회 : 전통음악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의 연령별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지회

본회회원 김영신, 지연선생님이 근무하던 경기도 능력개발센터의 재위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신선생님은 평등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연선생님은 당분간 쉬면서 어머니병간호합니다.

광주지부

3월 15일에 회원전체모임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4월말 예정되어있는 보육학교 준비와 어린이날 행사 논의, 99사업계획에 따른 부서사업을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부

*튼튼이어린이집의 김양희선생님이 독남하셨습니다. 동래지회 안명희선생님이 결혼을 했습

니다. 그리고 3명의 신입회원이 한식구가 되었습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창립대회 및 부산시 여성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보육교사회도 회원단체임) 주최로 3월 19일 국제신문사 4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부산보육교사회 박찬주회장이 종합토론자로 나올 예정입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99년 1월 24일-99년 3월 15일)

<서울>

주혜선(98년 8월-99년 2월)

장운정(98년 8월-12월)

장운정(98년 8월-12월)

북부지회 1월

남부지회

김미나(3월), 주혜민(2~3월), 박인해(2월), 이경녀(2~3월), 김수연(2~3월), 김정은(98년 12월~99년 2월), 김미선(98년 12월~99년 2월), 김옥희(1월~3월), 김진숙(1월~3월), 차은희(1~2월), 이애용(1월), 이미옥(98년 12월~99년 1월), 김지희(3월), 최인숙(3월), 박길수(3월)

<경기>

유필여(2월)

전경희(1월-3월)

임미란(98년 8월-12월)

수원지회 1~2월 완납

<광주>

98년 11월 12월 완납

<부산>

박찬주(1-2월), 한혜정(1-2월), 김효정(1-2월), 장정숙(1-2월), 박은영(1월), 김명선(1-2월), 김향진(1-2월) 김옥정(1월), 박희순(1-3월), 윤현진(1-2월), 황순미(1월), 이미애(사상구 1-2월), 박경미(1-2월), 김경혜(1-2월),

소식과 소식

김영수(1-2월), 김진희(1-2월), 김혜원(1-2월), 이미애(동래구 1월), 정은아(1월) 안미경(1-2월), 김순아(1월), 안명희(1월), 조영미(1월)

평생회원

박금희(2월) 이은애(2-3월) 권혜진(2월) 김명미(2-4월) 서정은(2월) 남미영(98년 8월-10월), 황미혜(99년 3월-7월) 서은희(2월) 정희연(99년 1월-2000년 12월), 최순옥(99년 1월-2000년 12월), 박정애(99년 1월-2000년 12월)

자료회비

이정림(3만), 전영일(3만), 서진심(3만) 오선영(3만) 오세향(10만원) 이향화(2만) 지규남(2만)

후원해주셨습니다

서울보육교사회 후원금 (36만원), 명예회원 25명 (100만원), 오윤정 (5만원), 김난희(5천원), 대전 샘골어린이집 전직교사(6만원)

사람들

축하합니다.

연구소 이선주연구원이 드디어 농촌총각과 결혼을 합니다. 모든 축하의 말도 모자라지만 멀리 나주로 떠나고 사무실도 떠나, 사실 너무도 서운한 마음이 앞서네요. 2년 반동안 연구소 일뿐아니라 보육교사회 일도 헌신적으로 많이 하였는데.... 행복해야 해요. 이선주선생님! 결혼은 4월 25일 나주에서 한대요. 참석은 못하더라도 작은 마음의 선물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참석이 가능하신분은 버스차량으로 갈 예정이니 연락주세요. 인원 점검이 되어야 하거든요. (016-603-6116 이선주)

출산을 축하합니다.

임남희부회장님(딸), 신현희선생님(아들), 고

정미선생님(딸), 김명미선생님(딸)이 출산을 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씩씩한 보육교사의 아이들로 키우기 바래요.

박정애 조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년간 상근을 한 박정애 조직부장이 상근을 그만두고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015-88556-7448)

본회 2·3월 활동일지

- 2/2 집행위 회의
- 4 여원복지위원회 회의
- 6~7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2월 보육료 지원금 지급
- 23 집행위 회의
- 3/2 집행위 회의
- 6 제15회 한국여성대회
- 9 집행부회의
- 12 보육교사 연봉제에 관한 원장간담회
- 13 이사회
- 15 실직자녀 겨울나기 3월 보육료 지원금 지급



편집부에서

● 우리네 아이들의 구조조정?

년간 10회 발행되던 「우리네 아이들」이 6회 발간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본회의 재정구조가 최악이 되면서 사무국 축소와 「우리네 아이들」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소 섭섭하고 속상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가슴아프지만, 그래도 두달에 나올 「우리네 아이들」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와 편집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 구독료 재조정

년 6회로 발간하게 되는 까닭에 구독료가 년 3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월 구독은 폐지하였으니 참고하시고요. 30,000원을 내신 자료회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구독기간을 연장하여드리겠습니다.

● 나은미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여동안 '유빈이의 육아일기'를 쓰신 나은미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은미선생님의 담백한 글과 남편인 이선홍씨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유빈이, 엄마, 아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 사이버정보망 펼진이 바뀝니다.

연구소 이선주연구원이 사이버정보를 찾기 위해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번호부터 김지희 선생님이 맡게 됩니다. 김지희 선생님은 본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 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회원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시설 홍보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전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교사 알선

교사를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연구 개발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교사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하여 교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전리안 GO BABY
아이텔 GO BEBO
유니텔 GO BEBO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회원이 되시면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교육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출강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68-3954 FAX. 02)271-1548 ID KDIRC(전리안)